2024 제2회
전국어린이글짓기대회

2024 제2회 전국어린이글짓기대회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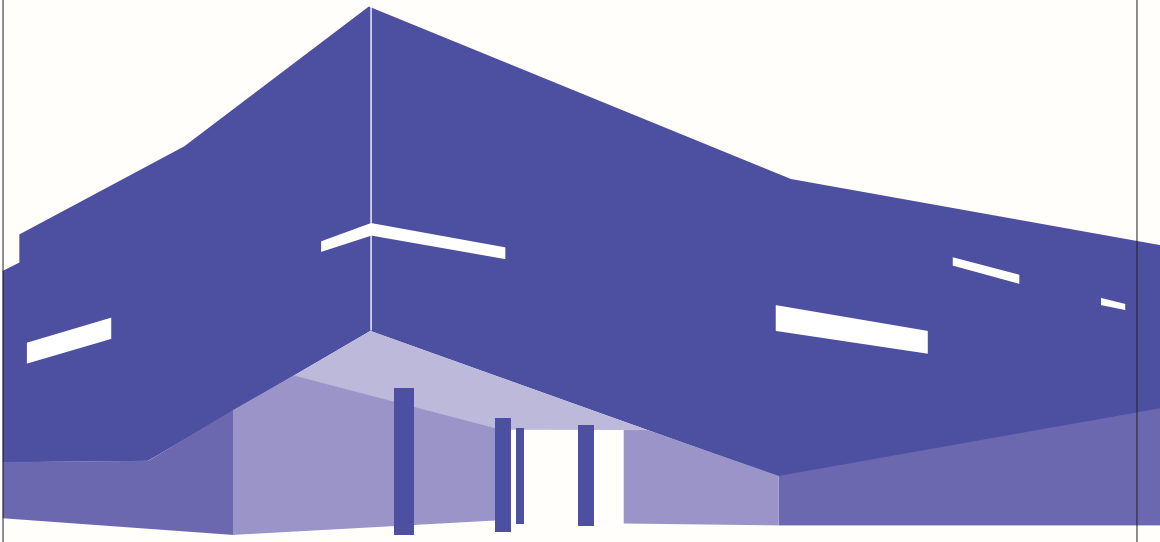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2024 제2회
전국어린이글짓기대회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全北日報社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2024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全北日報社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목차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2024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004 환영사
006 인사말

운문 13

010 새만금의 새로운 친구들 서범수
012 두근두근 바다 위의 세상 박은서
014 나의 보석바다, 새만금 양해온
016 선물 윤지원
017 새만금 종이접기 김채영
018 푸른 바다 위의 길 양푸른
020 새만금 철새도래지 이해나
021 새로운 땅 조현아
023 뭐든 할 수 있어! 이하준
025 새만금에 살고 싶다 김재윤
026 행운의 씨 윤하정
028 새만금, 꿈꾸는 땅의 노래 정원혁
030 우리는 행복한 하나! 엄규영

산문 28

034 우리 반 친구들에게 박정음
037 안녕, 28살 황준서! 황준서
039 소중한 우리 땅, 새만금 이주헌
042 새만금의 미래, 즐거운 상상 방서연
045 새만금에서의 소중한 나의 경험들 양예준
048 알면 알수록 신기한 새만금 명지완
050 내 친구 새만금! 김재민
055 꿈이 펼쳐지는 새만금 바다 - 희망이와 함께하는 변화 김나현
058 도화지에 새만금을 얹으면 이소민
060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맞이한 뜻깊은 하루 강은별
063 새만금 놀이터 김가온
064 새만금, 황금빛 보물섬 김예지
066 새만금 시간여행 이주형
068 뉴코리아 새만금센터 견학기 곽희원
070 내친구 만금이 손유진
072 새만금에게 전하는 소원 일기 양예린
074 공존하는 삶, “새만금에서 해내다” 이한율
076 자랑스러운 새만금 허유리
078 작고 약한 새끼 손가락 같은 새만금 김성훈
080 새만금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김아인
082 친환경 스마트 시티, 새만금 서은성
084 새만금 용왕과 소녀 이한별
087 걱정에서 희망으로 바뀐 소금땅 조재훈
089 새만금을 달리다 김현서
091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 박소희
094 꽃과 가시를 모두 가진 바다의 장미, ‘새만금’ 이하랑
097 할머니 집 가는 길 임유진
100 세계의 중심, 우리의 새만금 임하율

102 대회 개요
103 화보집
108 에필로그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맞이하여!

우리 박물관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글짓기 대회를 하면서
어린이 여러분이 바라본 새만금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작품에서는 새만금의 완성도를 넘어서서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력이 넘쳐나는 미래의 캔버스였습니다.

꿈나무들과 세계로 향하는 드넓은 무대는
우리 박물관의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김 항 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장

오늘도 쉼없이 다음 세대의 진정한 지도자를 만들어 주시는
교육 현장의 지도선생님!

새만금 르네상스를 만들어 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만금, 어린이들의 자랑

김 영 심사위원장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올해도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는 '새만금의 주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라는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장님의 기치 아래 뜻을 같이하는 문인들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들여 마련한 행사입니다.

어린이가 보는 자랑스러운 새만금, 그리고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사랑스러운 새만금을 글로 표현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첫걸음부터 웅대해서 전국의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어린이들과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설계하고 새만금에 대한 애정을 글로 표현하도록 지도해주신 전국의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생각을 담아 새만금을 글로 표현하고, 직접 새만금에 와서 보고, 그리고 새만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한없는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의 수상작들을 모아 발간한 이 문집이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 새만금의 중요함을 더 잘 알게 하는 하나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혁 심사위원장

두 번째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만금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새만금은 미래를 향하여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눈에 비춘 새만금은 이 나라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귀한 자연적 유산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비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주의 깊게 둘러보다 보니 평소에는 알 수 없었던 간척의 역사가 다시금 가슴을 울리게 되었으며 각 나라의 간척역사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와 환경에 맞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간척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간척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였듯이 새만금 또한 대한민국의 커다란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의 역사적 현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자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게 될 때 새만금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 주요한 자원임을 알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만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 글짓기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문 13

새만금의 새로운 친구들	서범수
두근두근 바다 위의 세상	박은서
나의 보석바다, 새만금	양해은
선물	윤지원
새만금 종이접기	김채영
푸른 바다 위의 길	양푸른
새만금 철새도래지	이해나
새로운 땅	조현아
뭐든 할 수 있어!	이하준
새만금에 살고 싶다	김재윤
행운의 씨	윤하정
새만금, 꿈꾸는 땅의 노래	정원혁
우리는 행복한 하나!	엄규영

수상 작품

운문

새만금의 새로운 친구들

새만금개발청 청장상

하서초(전북 부안) 5학년
서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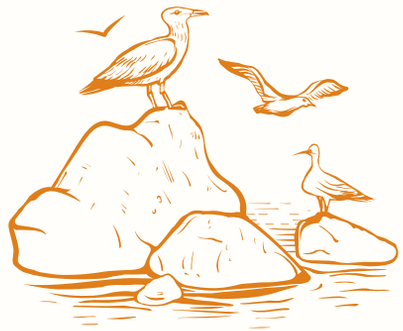
새만금에 살고 있는 두루미와 갈매기들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대요.
가지각색 드론과 비행기가 친구가 되어
새만금 하늘을 함께 비행한대요.

새만금에 살고 있는 수달과 물고기들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대요.
멋진 요트와 배들이 친구가 되어
새만금 바다를 바람결 따라 항해한대요.

새만금에 살고 있는 나무와 풀꽃들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대요.
높은 건물과 첨단 시설들이 친구가 되어
새만금 수변을 명품 도시로 만든대요.

새만금에 살고 있는 고라니와 다람쥐들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대요.
미래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친구가 되어
새만금에서 함께 꿈을 키워나간대요.

새만금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대요.
새만금에 친구들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



두근두근 바다 위의 세상

전북 특별자치도 도지사상

부안동초(전북 부안) 2학년
박은서

아빠 차 타고 새만금 드라이브 가는 길
우와! 이쪽도 바다, 저쪽도 바다네!
옆에서 우리 부안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다.
옛날에는 여기서
바지락도 캐고,
망둥어도 잡고,
내가 좋아하는 김도 땄단다.

지금은 그 바다 위로
차도 쌩쌩,
갈매기도 쌩쌩,
나도 쌩쌩 달리고 있다.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내가 조금 더 크면
이 바다 위의 새로운 땅에서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과자공장에서 과자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단다.

우와! 신난다 신나!

내 키가 쑥쑥 자라는 동안
바다 위의 세상도 쑥쑥 자라서
나도 같이 바다 위의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나의 보석바다, 새만금

특선

과천갈현초(경기 과천) 1학년
양해온

새만금 새만금 나의 보석바다 새만금
어디 어디 있을까?
아, 차 타고 가야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까? 근데 안된대
갈 수는 있겠지?
그럼 고속도로 나와라 뚝딱!
와,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잖아!

새만금 새만금 나의 보석바다 새만금
새만금의 바다를 보러 가야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까? 근데 안된대
갈 수는 있겠지?
그럼 뱃길 나와라 뚝딱!
와, 뱃길이 만들어졌잖아!

우와, 벌써 도착했네 나의 보석바다 새만금
물의 도시로 만들어보자
물의 도시 나와라 뚜우욱 딱!

여기가 바로 내가 살 곳이구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나의 보석바다 새만금!

선물

옥곡초(경북 경산) 1학년
윤지원

고모집 가는 길, 새만금길
바다 위 쭉쭉 뻗은 신비로운 길

처음에는 깊고 깊은 바다였다가
지금은 길고 곧은 땅

도깨비가 뚝딱뚝딱 만들었을까?
귀신이 몰래몰래 만들었을까?

오른쪽, 왼쪽 바다를 둘러보면
끼룩끼룩 갈매기의 웃음 소리

씽씽 달리는 차 안에서는
하하호호 우리 가족의 웃음 소리

기분 좋은 여행길, 새만금길
바다가 준 신기한 선물 같은 길

새만금 종이접기

서울조원초(서울 관악) 3학년
김채영

종이 비행기를 접어
하늘로 날렸어요.

새만금 공항이 생긴대요!

종이 배를 접어
바다에 띄웠어요.

새만금 항만이 생긴대요!

이번엔 색종이로
무엇을 접어볼까?

새만금에서
내 마음속 가득한 꿈들을
실현해 줄 거예요.

푸른 바다 위의 길

특선

군산초(전북 군산) 3학년
양푸른

푸른 바다 위에 드넓은 새만금,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자연과 친구가 되는 바다의 도시

내가 살고 싶은 푸른 새만금은
지구를 활짝 웃게 만드는
그린 성장으로 희망이 자라는 수변도시

씨앗이 쑥쑥 자라게 해 주고
곡식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길러주는 스마트팜이 기대돼요.

비행기의 주차장 국제공항은 하늘길
들판을 지나 바다까지 가는 기찻길
서해 바다에 배가 다니는 바닷길

하늘과 땅과 바다가 서로서로 이어주고
세계로 나가는 그 길 위에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꿈꿔요.

새만금 철새도래지

특선

청원초(서울 노원) 3학년
이해나

오래전 새만금에는
철새가 언제나 찾아와
노래하던 철새의 웃음은 사라지고
지금은 조용한 새만금

후손을 위해서라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나씩 차근차근 노력을 더한다면
다시금 새웃음 돌아와

새싹이 움트는 시작으로
철새들 온다는 소식에
반가워 옛날처럼 많은 철새 아니지만
변화된 모습이 첫 시작

관심에 관심을 더하여
다양한 철새들 다가와서
다시금 옛 명성을 찾아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면 좋겠어

새로운 땅

특선

하서초(전북 부안) 3학년
조현아

옛날부터 바다는
사람들의 보물 창고

물고기도 잡고
조개도 캐고
소금도 얻고
수영도 하고
쉬기도 하고

새만금 바다는
현재 사람들의 보물 창고

땅이 넓어지고
쌀이 많이 나고
교통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투자하고
친환경 에너지 만들고
관광이 발달하고

소중한 새만금은
앞으로 우리의 보물 창고

나무를 더 심고
동물을 더 보호하고
놀이시설 더 생기고
직업이 더 생기고
환경보호 더 하고

나의
우리의
모두의 자랑인
새로운 땅

뭐든 할 수 있어!

전주문정초(전북 전주) 4학년
이하준

바다가 땅이 된 미래
도전해서 생긴 미래
아끼고 지켜야 할 새만금

바다 공원을 만들고
바다 에너지를 만들고
바다 놀이터를 만들고
미래는 뭐든 할 수 있지

새만금 워터파크를 만들고
새만금 놀이공원을 만들고
새만금 전망대를 만들고
미래는 뭐든 할 수 있고말고

멋진 해안도로를 만들고
멋진 항구시설을 만들고
멋진 공항까지 만들고
미래는 뭐든 가능해

친환경 농사짓는 것을 연구하고
바다를 보호하는 법을 연구하고
환경보호 방법을 연구하고
미래에서 뭐든 기대할게

특선

새만금에 살고 싶다

하서초(전북 부안) 5학년
김재윤

새만금은 새가 날아 다니지만
미래의 새만금은 비행기와 드론이 함께 날아다닐 거야

새만금은 허허벌판이지만
미래의 새만금은 건물과 사람들로 북적북적 해질 거야

새만금에는 자동차만 다니지만
미래의 새만금에는 기차, 배, 비행기가 어울려 다닐 거야

지금 새만금에서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지만
미래의 새만금에는 해외를 갈 수 있는 공항이 있을 거야

지금 새만금에는 항구가 없지만
미래의 새만금에는 항구가 있겠지

내가 새만금에 살고 싶은 이유야
새만금에서 살고 싶다! 너는 어때?

행운의 씨

특선

가남초(충남 청양) 5학년
윤하정

행운의 씨를 뿌려보세
정성을 담아 키우면
물을 줄 길이 생길 테니

행운의 씨를 뿌려보세
정성을 담아 키우면
땅을 메울 둑이 생길 테니

행운의 씨를 뿌려보세
정성을 담아 키우면
농작물을 심을 땅이 생길 테니

행운의 씨를 뿌려보세
정성을 담아 키우면
세상을 바라볼 하늘길이 생길 테니

행운의 씨를 뿌려보세
정성을 담아 키우면
마법 같은 일이 생길 테니

새만금, 꿈꾸는 땅의 노래

대구장동초(대구 달서) 5학년
정원혁

푸른 바다와 황금빛 들판이 만나
새만금은 대지의 꿈을 품었다
거친 파도를 잠재운 손길 아래
넓고 평화로운 땅이 펼쳐진다

바다가 한 발 물러서며
웃으며 길을 내어 주자
끝없이 펼쳐진 대지 위에
무한한 가능성이 뿌리를 내린다

사람들이 하나둘 꿈의 놀이터로
옹기종기 모여 든다
농사짓고, 길도 내고
하늘 높이 무지갯빛 꿈을 날린다

바람이 속삭인다
내일은 또다시 새로워질 거라고
새만금의 땅에서 자라는 것들은
언제나 반짝이는 희망의 열매

도시도 짓고, 바다도 가꾸며
새만금은 설레며 단장을 한다
어제는 광활한 바다
오늘은 미래를 여는 땅

모두가 함께 꿈꾸며
새만금은 끝없이 자라난다
산과 들, 바다와 강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 길 위에
꿈꾸는 땅의 노래가 펼쳐진다

특선

우리는 행복한 하나!

서울탑산초(서울 강서) 6학년
엄규영

우리를 웃게 하는 신나는 게임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깔끔한 새 책의 냄새들이 어우러져
자연 생태계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며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며

과거의 모습부터 알찬 현재와
푸르른 미래까지 공존하는
새 생명이 살아 숨 쉬며 꿈틀대는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며
행복한 우리의 웃음까지도 뽑아내는
바닥분수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개비 언덕을 넘다 보면

어느새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알리며
꽃길과 함께
우리의 정겹고 즐거운 미래를 안내하니
우리는 행복한 하나!

산문 28

우리 반 친구들에게	박정음
안녕, 28살 황준서!	황준서
소중한 우리 땅, 새만금	이주헌
새만금의 미래, 즐거운 상상	방서연
새만금에서의 소중한 나의 경험들	양예준
알면 알수록 신기한 새만금	명지완
내 친구 새만금!	김재민
꿈이 펼쳐지는 새만금 바다 - 희망이와 함께하는 변화	김나현
도화지에 새만금을 얹으면	이소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맞이한 뜻깊은 하루	강은별
새만금 놀이터	김가온
새만금, 황금빛 보물섬	김예지
새만금 시간여행	이주형
뉴코리아 새만금센터 견학기	곽희원
내친구 만금이	손유진
새만금에게 전하는 소원 일기	양예린
공존하는 삶, “새만금에서 해내다”	이한율
자랑스러운 새만금	허유리
작고 약한 새끼 손가락 같은 새만금	김성훈
새만금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김아인
친환경 스마트 시티, 새만금	서은성
새만금 용왕과 소녀	이한별
걱정에서 희망으로 바뀐 소금땅	조재훈
새만금을 달리다	김현서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	박소희
꽃과 가시를 모두 가진 바다의 장미, ‘새만금’	이하랑
할머니 집 가는 길	임유진
세계의 중심, 우리의 새만금	임하율

수상 작품

산문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인천청일초(인천 서구) 5학년
박정음

얘들아, 안녕?

여름 방학 잘 지내고 있니? 오늘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곳이 있어서야. 그곳은 바로 전북 부안에 있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야. 혹시 간척박물관이라고 하니까 생소하게 느껴지지는 않니? 사실 처음에는 나도 그랬거든. 바다나 갯벌을 메워 공장을 세우거나 아파트를 짓는 것을 간척이라고만 생각해 왔었는데, '간척'박물관이라니…. 낯설면서도 어떤 곳일까 궁금했어. 그래서 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간척박물관을 방문하게 됐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알게 된 새만금 바닷가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들어줘!

새만금이라는 이름은 만경평야의 '만'과 김제평야의 '금'이라는 단어를 한 글자씩 가져오고, 새로운 땅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새만금'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대. 바다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닌 새로운 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이름에서 느껴졌어. 너희들은 어때?

새만금이라는 이름처럼 나도 설레고 새로운 마음으로 박물관에 들어섰어. 바로 전시동 1층 로비가 보였는데, 종이접기와 에어 글라이더 만드는 공간이 있었어. 언니와 함께 종이접기도 하고 에어 글라이더도 만들고 꾸미는데, 너희들이 생각났어. '너희들과 함께 만들면 참 즐겁고 좋았을 텐데.'하고 말이야.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전시를 보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전시실로 올라갔어. 전시실 입구에는 새만금 방조제와 그 주변 일대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 바다였던 땅이 육지로 변하는 것만을 간척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서해안의 복잡한 해안선을 거대한 땅으로 메워 지도를 바꿨다는 사실이 참 경이롭고 놀라웠어. 간척박물관 내부를 돌아보는 동안 나는 그동안 간척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간척의 역사는 고대 수리시설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일본의 토지수탈의 아픈역사까지 담고 있었거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척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간척의 역사가 참 흥미로웠어.

박물관 이곳저곳과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간척지가 공업단지가 되고, 신도시가 되고, 공항과 항구들이 되는 모형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이곳 간척박물관의 큰 주제는 인간과 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옛날부터 바다와 갯벌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었고 소중한 곳이었을 테니까…. 너희들도 이곳을 방문해서 나처럼 간척의 역사를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에서 간척으로 생겨난 문화와 정보들을 알게 되면 분명 너희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 아 맞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전시가 있어서 소개할게.

우리나라 전통 소금을 자염이라고 하는데 슬픈 이야기가 담겨있지 뭐야…. 자염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먹던 소금이었는데, 일본인에 의해 보급된 천일염에 밀려 잊힌 소금이 됐대. 이것도 일제의 수탈과 관련이 있었겠지? 전통방식보다 천일염을 만드는 방식이 간단했을 테니까 말이야.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책의 제목처럼 알고 나니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간척지들이 처음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

어. 솔직히 그래서 지금은 아픈 간척의 역사를 뒤로하고 33.9km로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니 왠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

관람을 마치고 옥상에 올라가니까 새만금 방조제를 볼 수 있었어.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새만금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모습이 참 이채로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 방문했을 때는 간척박물관의 외관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었는데, 다시 보니 박물관의 외형이 네모반듯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냈어. 이곳 새만금 간척지를 닮아 있었던 거야. 왠지 내 지식이 더 많이 쌓인 것 같지 않니?^^ 몇 년 후면 이곳은 송도 국제도시처럼 멋진 도시가 될 거라고 해. 새만금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기대가 되었어. 옛날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있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람이 나에게는 참 뜻깊게 느껴지는 하루였는데, 너희들은 어땠어? 개학하면 소감을 꼭 말해줘~^^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감상

안녕, 28살 황준서!

천안오성초(충남 천안) 1학년
황준서

지금 나는 8살이야. 그리고 이번 여름휴가로 가족들과 군산에서 즐거운 바다 수영도 하고 새만금에 대해 배웠어. 그래서 미래의 내가 잊고 있을지 모르는 8살의 기억을 너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

새만금은 원래 바다였는데, 사람들이 바다를 메우고 새로운 땅을 만들었대.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신 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 신기했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 큰 도시를 만들기도 했대. 내가 휴가 때 지나온 곳들 중 어디가 새로운 땅인지 궁금했지만,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아쉬웠어. 이번 가을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가서 같이 배워보기로 약속해서 기대 중이야.

새만금은 지금도 계속 발전 중이고 내가 어른이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서 눈에 많이 담아두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 핸드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었으니까 미래의 내가 새만금을 오랜만에 방문할 때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요즘 유튜브에 옛날이랑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 찍는 게 유행인데, 28살 나도 나처럼 귀여운 아들을 낳아서 아빠와 내 포즈로 사진을 찍어줘!

그리고 새만금에는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서 바람으로 전기도 만들고, 태양으로도 전기를 만든대. 신기하지? 학교에서 지구를 지키는 방법들이라고 배운 적 있는데, 실제로 바람개비가 아파트만큼 길어서 놀랐어.

20년 후엔 새만금이 얼마나 더 멋져졌을까? 아마 높은 건물도 많고, 공원도 멋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기도 맑고 깨끗할 거 같아. 그때 나는 어른이니까, 전기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해보면 좋겠어!

그곳에서 나처럼 꿈을 키우고 있는 아들에게 새만금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지? 나는 엄마처럼 어려운 질문에도 잘 대답해 줄 수 있도록 가을에 꼭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가볼 거야.

새만금은 새로운 시작의 땅이니까, 나도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싶어. 그럼, 20년 후의 나도 나처럼 새만금을 응원해 줘!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감상

소중한 우리 땅, 새만금

군산풍문초(전북 군산) 4학년
이주헌

우리 아빠는 고군산군도의 한 섬인 무녀도에서 태어나 자라셨다. 그 덕분에 나는 기억나지 않는 어릴 때부터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 섬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내 기억에 코로나가 시작된 7살부터 본격적으로 새만금은 나에게 재미있는 놀이터가 돼주었다.

자동차가 비응항을 지나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 내가 좋아하는 돌고래 휴게소에 들러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바다의 파도와 노을을 봤던 기억이 있다. 어느 날은 주변에 차들이 줄지어 있어 부모님께 여쭤보니 바다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덕분에 나도 낚시에 관심이 생겨 직접 배를 타고 바다낚시를 갔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또 어느 날은 걷기대회나 철인3종경기를 하느라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살고 있는 군산 '새만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기하고 자랑스러웠다.

나에게는 새만금이란 지역 이름보다 아무래도 바닷가 갯벌이 훨씬 익숙하다. 가슴장화를 입고 갯벌에 나가서 동생이랑 물장구치며 노는 재미가 있었다. 특히 '밤게'라는 게를 봤는데 갈매기가 날아와 서성이자 밤게가 갯벌 속으로 숨는 모습이 우스웠다. 이렇게 갯벌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방패가 되어 지켜주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바지락을 캘 때 갯벌에서 쑥쑥 나오는 것이 신기했고, 갓 잡은 바지락을 내가 좋아하는 칼국수 라면에 넣어 먹는 것은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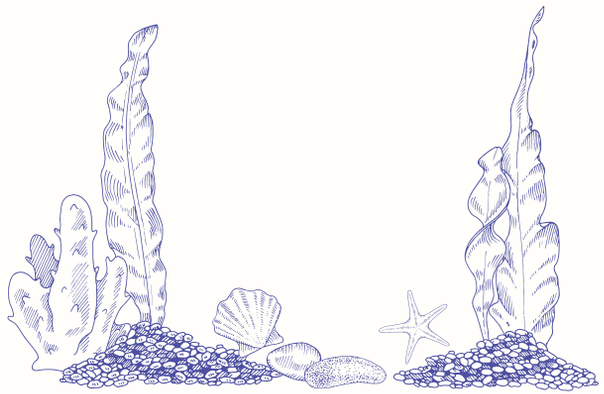
섬에 갈 때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는 물고기들, 낙지, 꽃게, 바지락, 소라와 같은 해산물이 지금 나의 특별한 식성을 만들어 주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먹어서인지 거부감 없이 먹게 되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정도에 맞춰 드러나는 갯벌은 나에겐 그 어느 것보다 당연한 모습이고 '자연' 그 자체이다.

이렇게 바다는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는 특식 창고이자 재미있는 놀이터이지만, 이곳 서해안에서 태어난 우리 아빠와 할아버지에게는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다. 지금은 일을 그만두셨지만, 바다에서 나오는 멸치를 잡고 김 양식을 하신 할아버지는 그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어촌 사람들에게 있어 바다는 고마운 텃밭이다. 따로 씨를 뿌리지 않아도 먹거리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갯벌에서 1년 내내 먹거리를 얻고 갯것을 팔아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고 할머니께서도 말씀해 주셨다.

섬이 고향인 가족 덕분에 바다가 친숙한 나에게 이번 기회에 방문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또 다른 우리 지역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그동안 수없이 지나왔던 길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막아 생긴 도로라고 하니 그것도 놀라웠고, 몇 번 가보았던 인천국제공항 역시 인공적으로 만든 간척지였다는 것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의 군산 땅이 새만금 개발로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오히려 가까이 있어 보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웠다.

이번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친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니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누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싱싱한 낙지와 라면을 끓여 먹은 추억이 언제까지나 허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전보다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다의 생태계가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의 소중한 땅 새만금이 자연과 어우러진 개발로 이루어져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



새만금의 미래, 즐거운 상상

전북일보 사장상

번암초동화분교장(전북 장수) 2학년
방서연

새만금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함께 가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댁으로 갔다. 나는 할머니께 여행 이야기를 해주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가져온 새만금 지도도 거실에 펼쳐 보여드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가 예전엔 바다였대요. 여기를 흙이나 돌 등을 쌓아서 바다를 메워 땅으로 만들었대요."

"아! 간척지구나."

"네, 맞아요. 간척지. 박물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엄청 신기했어요."

난 그날의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신나게 말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증조할머니 댁 근처에도 간척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작년에 가서 양파를 캤던 거 기억나? 그곳이 지금은 밭이지만 예전엔 바다였어. 증조할머니께서 지금도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해마다 우리에게 쌀과 양파 등을 보내주신단다."

"증조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쌀이 간척지에서 만든 거구나! 바다가 땅이 되어 사람들에게 쌀과 옥수수, 감자, 양파, 마늘 등을 주네요."

내 옆에 이런 게 있을 줄이야. 9년 만에 알게 된 신기한 사실이었다.

장흥군 증조할아버지 동네의 간척지는 농사의 터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다녀왔던 새만금의 간척지는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까? 궁금해졌다. 새만금의 간척지는 우리 할아버지 동네의 간척지와는 비교도 안되게 엄청 넓었다. 간척지를 활용해서 공장, 놀이동산, 공항을 만들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는 등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나는 소금을 만드는 염전으로 변신한 새만금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안군에서 천일염의 생산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새만금에도 염전을 많이 만들어 천일염을 생산하면 어떨까? 바다와 햇볕, 바람이 만들어 준 천일염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새만금에 염전이 많아지는 날이 오면, 전국 곳곳에서 새만금 염전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올 것 같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소금의 소중함도 배우고, 염전 주변의 생태계도 관찰하면서 새만금의 소금 젤리를 먹을 것 같다. 신안에 소금 아이스크림이 있으니, 새만금에도 맛있는 소금 젤리 가게가 생기지 않을까? 단짠젤리 생각만으로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또 염전 주변에서 해양생물을 관찰하느라 어린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다. 니모처럼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 옆으로 기어가는 꽃게,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숨 쉬는 조개, 나풀나풀 거리는 해조류도 볼 수 있겠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새만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번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동산으로 변신한 새만금을 상상했다. 염전 옆에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새만금의 놀이동산이 생길 것 같다. 이름은 새만금랜드다. 홍콩, 상하이, 도쿄 등 간척지에 지어진 디즈니랜드처럼 새만금에 멋지게 생길 것 같다.

넓은 땅 위에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만들어 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호

텔도 짓고, 우리나라의 지역마다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들을 파는 식당들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새만금랜드라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사람들도 오고 싶어 할 것이다. 외국 사람들이 새만금 공항을 이용하여 휴가를 새만금으로 와서 새만금랜드에서 놀고, 먹고, 쉬었다 가는 새만금 해외 패키지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외국에서 유행하는 한국의 케이팝처럼 새만금도 엄청난 인기가 생길 것 같다. 또 내가 좋아하는 '흔한남매'가 새만금랜드를 가서 유튜브를 찍어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난 그 영상을 보고 난 후 엄마 아빠께 놀러 가자고 할 것 같다.

새만금으로 새로 생긴 우리나라의 땅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 수 있게 공장이나 회사들을 지어줄 수도 있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 워터파크, 동물원 등을 세울 수도 있고, 사라져 가는 동식물을 위한 생태환경단지도 만들 수 있다. 새만금이 변할 수 있는 모습은 많은 것 같다. 다음번에 내가 다시 새만금을 가게 되는 날에는 내가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전북일보 사장상

새만금에서의 소중한 나의 경험들

군산미장초(전북 군산) 5학년
양예준

우리 아빠는 쉬는 날이면 새만금의 명소를 둘러보는 것을 무척 좋아하신다. 그런 아빠를 따라 나도 많은 곳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갔던 곳을 또 가기도 해서 지루하기도 했지만 자주 다니다 보니 새만금에 멋진 곳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빠께서 새만금은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쳐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뜻으로 만경평야의 '만', 김제평야의 '금'을 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새만금이 이렇게 생겨난 이름이라니 새로운 사실을 알아 뿌듯했다.

아빠와 가본 곳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새만금 방조제이다. 어느 날 그곳에 갔는데 아빠는 새만금 방조제를 바라만 보고 계셔도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하셨다. 나도 때때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 새만금 방조제는 길이가 30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나게 긴 방조제이다. 얼마나 긴지 궁금증이 생겨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다. 아빠와 자주 가는 새만금 방조제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웠다. 또 그 엄청나게 긴 새만금 방조제를 보니 마치 멋지고 큰 용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곳은 새만금환경생태단지였다. 입구에 들어서니 새만금의 땅을 지키는 수호신 인형인 새곤이와 새만금의 물을 지키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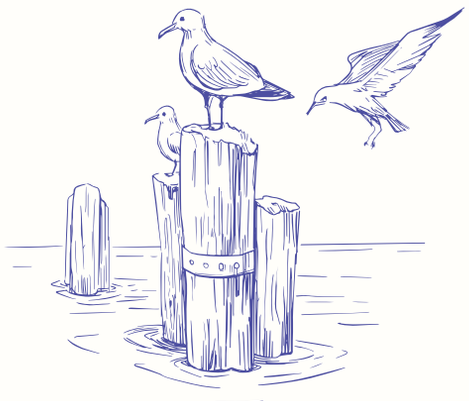
호신 인형인 새감이가 우리를 반기며 서 있어서 나는 얼른 달려가 사진을 찍고 인사도 했다. 그곳에 다양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재미있었다. 그곳에서는 다육이 화분 꾸미기, 컵받침 만들기 체험, 그리고 공을 던져서 그림 속 생물들을 맞히는 게임, 모자 만들기 등 많은 체험과 게임을 했다. 그리고 자전거를 대여해 가족들과 함께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둘러보았다.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나와 동생은 빨리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넓은 놀이터에는 누워서 탈 수 있는 대형 그네도 있었고 미끄럼틀도 있었지만,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집라인이었다. 집라인은 너무 재밌어서 타고 또 탔다. 와!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곳이 있다니. 지금 생각하니 또 가서 더 재미있게 놀고 싶다. 이날 나의 최고의 경험은 예약해 놓은 전기카트를 타며 새만금환경생태단지의 풍경과 명소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천천히 전기카트를 타고 올라가면서 해설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시멘트 위에 찍힌 동물들 발자국을 보며 '언젠가 또 내가 방문했을 때 그 동물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다.

쭉 올라가 전망대가 있는 달팽이언덕에 도착해서 망원경으로 생태관 풍경과 주변 명소를 보았는데 평소에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전기카트를 타고 다시 내려와 그 여운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입구를 나서는데 한쪽에서 암벽등반 도전을 하고 있는 광경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나는 조금 무서웠지만 아빠와 동생과 함께 도전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동생은 끝까지 올라가 종을 치고 성공했고 나는 조금 남겨두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 중간에 내려왔다.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조금 더 올라가서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후회됐다. 그래도 처음 암벽등반에 도전해 봤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재미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곳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갔을 때인데 그곳에서 간척 역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시할 것 같아 보였는데 한 곳 한 곳 둘러볼수록 새만금의 역사와 미래도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간척 역사도 볼 수 있었다. 내가 이곳 간척박물관에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동생과 내가 가장 흥미롭게 했던 체험이 있다. 영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내가 그린 그림이 화면에 나와서 볼 수 있었는데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멋지고 환상적인 곳들을 나만 가본 것이 아쉬워서 바로 다녀온 다음 날이면 항상 반 친구들에게 새만금의 멋진 곳에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 주었다. 내 친구들도 내가 갔던 곳들을 가보게 된다면 그 놀라운 경험들에 입이 떡 벌어질 것이다. 나는 아빠가 새만금의 다른 멋진 곳을 언제 또 데려가 주실지 기대하고 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새만금

번암초(전북 장수) 2학년
명지완

방학 동안 학교 돌봄을 다녔다. 다른 친구들은 제주도도 가고 다른 곳에 여행을 갔는데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아무 곳도 갈 수 없었다. 그때 선생님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가보면 좋겠다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 주셨다. 부안은 가까워서 주말에 갔다 올 수 있다고 해서 엄마, 아빠랑 여름방학이 끝나는 주말에 박물관에 갔다.

아빠 차를 두 시간 타고 부안에 갔다. 부안도 우리 고장처럼 시골 같았다. 나는 박물관은 도시에만 있는 줄 알았다. 높은 건물도 있는 대도시라고 생각했는데 바다가 보이는 넓은 들판에 박물관이 있었다.

"바다에 넓은 땅이 있네?"

혼잣말을 했는데 엄마가 설명해 주셨다.

"예전에 이곳은 바다이고 갯벌이었어. 간척사업으로 이곳이 넓은 평야가 되었단다. 간척은 강이나 호수 주변의 낮은 땅을 메우는 것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갯벌과 바다로 변화했단다. 우리는 지금 바다를 밟고 있는 거야."

"엄마, 너무 신기해요. 박물관에 가면 간척 사업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지고 재밌을 것 같아 박물관에 빨리 가고 싶어졌다.

상설전시관부터 갔다. 새만금 바닷가에 있는 다양한 해양 신앙에 대해 읽어보았다. 새만금 바다의 전통 신앙으로 용왕·용궁부인, 관음보살, 개양할미 이야기가 나왔다. 개양할미는 여덟 딸과 함께 칠산바다를 다스렸다. 나는 외동아들이다. 형이나 동생이 있는 친구가 부러웠는데 이 할머니는 딸만 여덟이라는 게 신기했다. 이것저것 구경을 했다. 시간이 금방 흘러서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 바지락칼국수를 먹었다. 갯벌에서 잡은 것이란다. 오후에는 바다에서 수영을 했다. 처음으로 바다에 들어가 봤다. 바닷물이 정말 짰다. 입수한다고 장난치다 바닷물을 엄청 많이 먹었다. 바다가 엄청 신기했다.

개학을 하고 선생님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갔다 온 것에 대해 일기를 써 보았냐고 하셨다. 내가 까먹고 하루 이틀 일기 쓰는 것을 미뤘더니 박물관에서 본 것이 생각이 안 났다. 선생님이랑 다시 인터넷으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접속했다. 터치를 하니 내가 직접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다.

"내가 여기 왔었는데 또 온 것 같아."

직접 보고 또 인터넷으로 보니 더 신기하고 또 가고 싶어졌다. 새만금에는 바다가 넓은 들판이 되어 박물관도 생기고 또 인터넷 박물관 등 간접체험도 가능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방문해서 간척사업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새만금은 우리가 많이 알고 공부하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만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다.

내 친구 새만금!

군산아리울초(전북 군산) 3학년
김재민

'맴맴맴' 집 앞에 느티나무가 운다. 여름이 덥다고 매미가 우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방학을 맞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견학을 가기로 했다. 박물관은 2023년 8월 7일 개관을 했다. 나는 처음 방문이라 무척 궁금하고 설레었다. 출발하는 차 안에서 웃으며 엄마에게 말씀드렸다.

"엄마! 박물관이 곧 1살이 되니까 생일 축하도 해야겠네요."

"그렇네! 4일만 지나면 개관 1주년이구나."

시내를 지나 새만금북로에 들어섰다. 금세 건물들은 사라지고 초록 물결이 넘실거렸다. 새만금개발청을 지나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큰 광고판이 보였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종 선정!"

"아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뭐예요?"

"이차전지는 장난감 건전지처럼 다 쓰면 버리는 일차전지와는 달리 충전해서 쓸 수 있어. 전기차, 노트북, 핸드폰에 사용하는 전지란다. 아마 이차전지 만드는 공장이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같은데…."

"우와! 그러면 새만금이 발전하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거네요."

아빠의 설명을 듣고 나는 넓은 간척지 안에 이차전지 기업과 공장이 들어서는 상상을 했다.

어느새 탁 트인 제4방조제 도로를 달렸다. 잠시 해넘이휴게소 전망대에서 고군산도 섬들을 구경했다. 관광객들이 만세 자세로 사진을 찍었다. 나도 만세 자세로 바다를 구경했다. 다리가 휘청거린다. 바람이 많이 분다. 갈매기랑 나랑 섬까지 날아 갈 것 같다.

다시 차를 타고 제3방조제를 지나면 고군산도 가는 길이 보인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관광하던 섬이라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다. 이제는 방조제와 다리가 생겨 언제든 차를 타고 올 수 있어 모두가 편리한 것 같다. 멀리 준공기념탑이 바다를 내려보고, 신시광장 아래 터널이 놀이터 원통처럼 보인다.

"아빠! 대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굴뚝 같기도 하고…."

"배수갑문이야. 여기는 만경강이 넘치면 수문을 열어 바다로 보내고 바다가 넘치면 막아주는 문이란다. 좀 더 가면 동진강이 넘치면 막아주는 가력배수갑문도 있어."

"우와! 배수갑문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네요."

"그럼 물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신시대교를 지나니 제2방조제는 무척 바쁜 것 같다. 오른쪽에는 새만금신항만 공사를 하고 있고, 왼쪽에는 스마트 수변도시 푯말이 보인다. 매립공사로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한다. 엄마는 스마트 수변도시에 학교, 아파트가 생기고 공항, 철도, 항구까지 연결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철도 이야기에 신이 나서 말씀드렸다.

"엄마! 다음에 올 때는 우리 기차 타고 놀러 와요."

엄마는 6년 후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대포다.' 가력배수갑문이다. 멀리 큰 바람개비가 보인다. 풍력발전기가 2대 서 있다. 나는 그것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표지판 같다. 제1방조제를 마지막으로 드디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도착했다.

넓은 주차장과 야외 조형물이 우리 가족을 반겨주었다. 박물관 문을 열

었더니 시원한 공기에 마치 냉장고 문을 여는 것 같았다. 안내하는 선생님이 입구에서 우리 가족을 친절하게 맞아 주셨다. 짧은 안내를 듣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까지 단번에 올라갔다. 전시장 입구에는 새만금 사진들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바다 영상이 보인다. '우와!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 같다. 섬과 바다를 연결하는 영상 속 길이 우리가 차를 타고 건너온 방조제길 같다.'

그 영상을 따라 들어가면 바다와 갯벌에서 하는 활동들이 전시되어 있다. 물고기잡이 놀이, 소금 만드는 방법… 특히 나는 행성에 관심이 많은데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이유와 바닷물의 높이 차이를 알게 되었다. 또 새로운 사실은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조차가 가장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한반도 간척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광복 이후 간척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도 있다. 손과 농기구로 간척하다가 지게를 지고 돌을 나르고, 지금은 포클레인과 트럭을 이용하여 땅을 메운다. 그런데 마지막 영상에 배가 보인다.

"아빠! 여기 큰 배가 보여요. 왜 배가 있나요?"

"그 배는 방조제 공사에 이용했어. 옛날에 방조제 막바지 공사 중에 물살이 너무 심해서 폐유조선으로 막아서 방조제를 연결했단다."

"이야~ 그럼 배로 물살을 막은 거군요. 똑똑한 생각 같아요."

중앙에는 우리나라 간척지 15곳을 볼 수 있는 화면도 있다. 밑의 화면을 먼저 핸드폰처럼 누르면 모두 볼 수 있다. 동생은 키가 작아 새만금 배수갑문 조형물에 서서 방조제 도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로 차 다녀. 여기로 아빠 차 지나갔어."

동생이 귀여워 엄마가 사진을 찍었다. 이 조형물 홀로그램 영상에서 새만금 방조제가 33.9km라는 것과 세계에서 가장 긴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다.

갑자기 좁아지는 통로에는 "왜 공항(논밭, 랜드마크, 항구, 공장, 놀이공원) 등은 간척지에 지어졌을까?"라는 물음에 답하는 내용이 있었다. 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넓고 평평한 땅이 필요한데 간척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곳을 지나면 세계의 간척을 볼 수 있다. 많은 나라가 간척을 하고, 그곳에 유명한 건물을 세우고, 발전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우리 새만금에도 그런 멋진 건물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아빠는 특히 네덜란드 간척의 영상을 보라고 추천했다. 연도별로 간척한 땅을 표시해 주는 영상이다. 아마도 해수면이 낮아 해일, 홍수 자연재해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간척지를 만든 것 같다. 한쪽에는 네덜란드 풍차 모양과 배수 원리를 설명하는 전시물이 있다. 나는 풍차가 방앗간인 줄만 알았는데 풍차는 간척에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둥근 복도를 지나면 '내가 그린 새만금 영상관'이다. 동생이랑 비행기 색칠 후 종이를 스캔했다. 화면에 스캔한 비행기가 새만금 하늘을 날아다녔다. 동생이랑 나도 덩달아 비행기를 따라 왔다 갔다 했다. 모든 전시를 보고 1층으로 내려왔다. '도전! 새만금을 달려라.' 애니런 체험존에 가족 모두 얼굴을 찍고 캐릭터를 선택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며 '다다다' 뛰었더니 내가 1등으로 결승점에 들어왔다. 엄마랑 동생은 아직도 뒤뚱거리고 있다. "하하하"

어린이간척연구실에서 책도 보고 블록으로 방조제 도로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많아서 지나쳤던 종이접기 코너를 다시 갔다. 배를 접다가 방법이 헷갈려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엄마가 끝까지 차근차근 접는 방법을 알려 주셨고 마침내 혼자서 접었다. 접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3개를 접어 동생이랑 물 위에 배를 띄웠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언덕길을 따라갔더니 육교로 이어지는 새만금홍보관이 나왔다. 3층 전망대에서 새만금 구경도 하고 층을 따라 이어진 전시장은 새만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새만금 미래를 한눈에 보는 모형실이 가장 재미있었다.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깜빡이며 위치를 알려주었다.

새만금홍보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들고 집으로 출발했다. 차 안에서 새만금 관광지도를 보는데 새만금 수목원에 "2027년 완공! 아리울타워"가 보였다.

"어! 내가 다니는 군산 아리울 초등학교 이름이랑 똑같다."

엄마가 새만금의 원래 이름이 아리울이라고 하셨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뜻이 있는 이름이다. 우리 학교 교표인 아리울도 "풍요롭고 생명에 찬 물(아리)의 울타리(울)에서, 자라고 배운 학생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의미이다.

갑자기 새만금 방조제가 나와 친구가 된 듯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 둘의 공통점은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리울초등학교 안에서 배우고 자라 희망찬 미래를 꿈꾼다. 내 친구! 새만금도 바다 울타리 안에서 멋있게 발전하여 세계의 중심이 되는 간척지가 되길 꿈꾼다. 오늘부터 우리의 꿈이 성장하는 미래를 서로 응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으로 가는 방조제길! 멀리 아지랑이가 일렁인다. 쭉 뻗은 방조제 도로는 땀에 젖은 것처럼 보이다가 다가서면 사라진다. 열심히 놀아서 그런지 내 눈도 스르르 감긴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장상

꿈이 펼쳐지는 새만금 바다 – 희망이와 함께하는 변화

한밭초(대전 서구) 6학년
김나현

아주 오래전, 서쪽 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해안가에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있었습니다. 마치 끝없는 양탄자 같았지요. 그곳에는 귀여운 작은 게들이 종종걸음을 쳤고, 싱싱한 조개들이 숨바꼭질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붉게 물들면, 철새들이 지친 날개를 쉬기 위해 이 갯벌에 내려앉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새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금빛 모래사장에 앉은 새들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은 모든 생명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갯벌에는 갯지렁이들이 꿈틀거리며 바닷물을 정화했고, 망둑어들이 뛰놀면서 갯벌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반짝이는 반딧불처럼 갯벌의 바다달팽이들이 어둠을 밝혀 마법 같은 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는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어린 소녀, 나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현이는 새만금 갯벌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게와 조개들을 보고, 철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이 그녀에게는 보물 같은 체험이었지요.

어느 날, 나현이는 갯벌에서 희귀한 흰뺨검둥오리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꼼짝 못 하고 있는 새끼였습니다. 나현이는 새끼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밤낮으로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부드

러운 천으로 감싸주며 헌신적인 마음으로 간호했습니다. 며칠 후, 새끼 오리의 다리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현이는 기뻐하며 새끼 오리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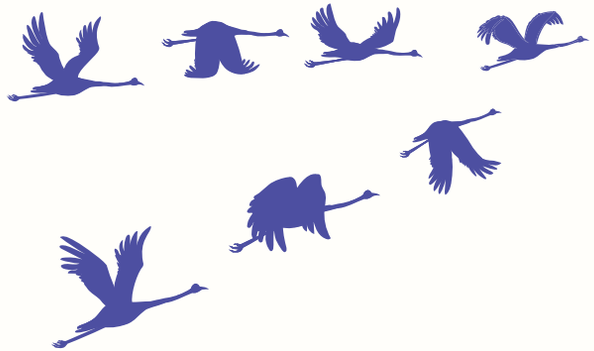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새만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조제를 쌓아 넓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새만금은 첨단 농업과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첨단 시설을 갖춘 농장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했고, 태양열 발전소는 푸른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첨단 기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현이는 옛 갯벌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현이는 희망이가 다시 갯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픔에 잠겼습니다.

나현이가 발견한 방법 중 하나는 친환경 농업이었습니다. 그녀는 갯벌을 일부 복원하고, 그곳에서 염생식물(염분에 잘 견디는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갯벌의 생태계를 되살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또한 갯벌의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갯벌 주변에 자연 보호 구역을 설정하여 인간 활동을 제한하고, 철새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함께 새들의 안식처를 마련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현이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공장 설립, 환경을 고



려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새만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친환경 농업과 에너지 시설을 체험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년 후, 나현이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새만금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겪었고, 이번에는 개발과 자연 보호가 조화를 이룬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철새들은 하늘에서 춤을 추며 돌아왔고, 게와 조개들도 다시 찾아와 갯벌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나현이는 희망이를 갯벌에 풀어주었습니다. 희망이는 자유롭게 날갯짓하며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희망이를 따라 다른 철새들도 새만금 갯벌로 돌아왔습니다. 나현이는 희망이를 통해 새만금 갯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현이가 찾아낸 인간과 자연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덕분에 새만금은 다시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새만금은 첨단 기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함께하는, 꿈이 펼쳐지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장상

도화지에 새만금을 얹으면

서울고원초(서울 구로) 6학년
이소민

지금은 2030년, 새만금 수변도시 정주공사가 드디어 완료되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어떤 색다른 모습으로 변했을지 궁금하다. 난 지금 새로운 도시, 새만금 앞에 도착해 있다. 왜냐하면, 난 새만금 아파트 입주자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많은 사람이 나를 반겼다. 난 그 모습에 한 번 놀라고, 새만금의 풍경에 또다시 한 번 더 놀랐다. 아직 이삿짐 차가 도착하지 않아서 난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기로 하였다.

첫 번째로 난 공원으로 향했다. 내 발걸음은 나에게 물음도 없이 향기로운 꽃내음 가득한 공원으로 갔다. 공원은 기대 이상이었다. 공원이라고 하면 나무와 꽃이 있는 공간일 뿐이다. 하지만 새만금의 공원은 달랐다. 나무와 꽃은 참 잘 어우러져 나를 반겼고, 새와 나비는 날아다니며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어주었다. 갑자기 내 눈앞에 신기한 광경이 그려졌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지만 내 상상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원에서 하하 호호 웃으며 놀고 있고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 가족도 내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다. 절로 웃음이 나왔다. 나도 시간이 된다면 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을 초대하여 우리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내 발걸음은 무지 말썽이다. 공원도 아직 다 감상을 못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바로 놀이공원이다. 놀이공원은 아직 개장되지 않았지만 들어가 구경을 할 수 있었다. 난 놀이공원의 압도적인 크기에 깜짝 놀랐다.

"우와 진짜 크다!"

내 옆에서 구경하던 꼬마가 말했다. 절로 웃음이 나왔다.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사방에서 꽃이 춤을 추고 있었다. 사람들을 보고 싶었나 보다. 그곳에는 유명한 놀이공원 못지않은 놀이기구들이 가득했다. 바이킹, 회전목마, 대관람차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다. 생각해 보니 대관람차는 밤에 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대관람차를 타고 서서히 위로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는 새만금의 아름다운 야경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무지 설렌다.

또 나의 발걸음은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바로 자연 폭포와 호수이다. 이곳은 새만금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곳인 것 같다. 내 아파트와는 꽤 거리가 있어 아쉽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힘들어도 호수를 향해 걸어오면 절경을 맛볼 수 있다. 폭포가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내 마음도 폭포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향한다. 특히 새만금의 호수는 참 특별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계절을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시원한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꽁꽁 언 호수로 바뀌어 썰매장으로 변신한다. 난 그 점이 참 좋다.

새만금은 참 자연 친화적인 도시 같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공장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해져 예쁜 풍경을 볼 수 없는데, 새만금은 마음껏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난 오늘도 새로운 새만금을 나만의 도화지 위에 살포시 얹어본다….

특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맞이한 뜻깊은 하루

번암초동화분교장(전북 장수) 1학년
강은별

장수군에 있는 동화분교 1학년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산과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농촌에 살고 있어서 여름방학에는 바다로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8월, 엄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별아! 우리 이번 여름방학에는 경수 이모 가족과 함께 부안에 있는 변산해수욕장으로 2박 3일 여행 가자!"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수 이모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니 생각만으로도 콧노래가 나오고,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왔습니다.

첫째 날, 우리 가족과 경수 이모 가족은 맛있는 음식과 물놀이 도구를 가지고 변산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낮에는 신나게 물놀이와 모래놀이를 하고, 밤에는 큰 양동이에 한가득 찰 만큼 조개도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얼굴과 팔, 다리가 새까맣게 타는 줄도 모르게 정말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둘째 날, 엄마께서는 숙소에서 5분 거리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가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얼대는 동생은 아빠께 맡기고 서연이 언니, 다윤이 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만금이 무엇인지, 간척박물관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궁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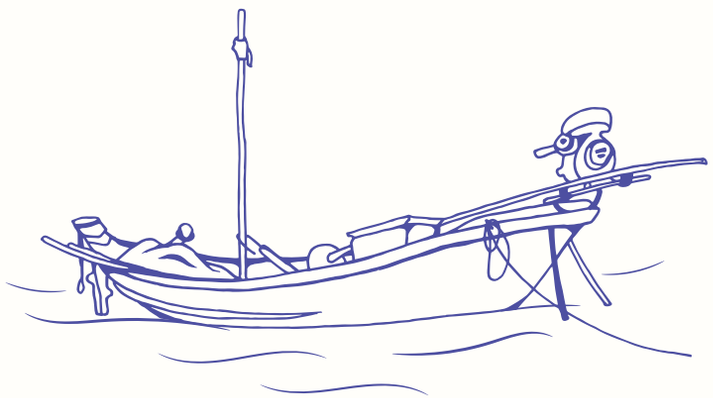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도착하니, 해설사 선생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새만금의 바다·갯벌·삶'이라는 상설전시실 체험활동지를 주셨는데, 활동지 첫 장에 새만금은 "새로운 만금의 땅"이란 의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합쳐 금만평야로 불렀는데, 금만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의미로 새만금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이름이 이런 의미였다니,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 도진이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게 세 번이나 활동지에 적힌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선생님을 따라 상설전시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간척은 바다를 육지로 만들기 위해서 인공 둑을 쌓고 바닷물을 퍼내서 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설사 선생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간척지 위에는 도로도 만들고 건물, 공장, 학교도 짓고 집도 지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바다가 땅이 된다니 영상과 사진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고 신기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새만금 간척지에서 축제도 열릴 수 있고, 놀이동산도 생길 수 있고, 멋진 집과 공원도 생길 수 있다니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간척연구실에서는 바다, 간척과 관련된 책도 있고, 전자노트에 내가 꿈꾸는 새만금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미노로 새만금 방조제 도로 연결하기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도로 모양 도미노를 쭉 연결하면서 엄청 긴 도로를 만들었는데, 새만금 방조제도 33.9km나 되는 초대형 둑이라고 엄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새만금 방조제는 바

다의 만리장성이라는 별명도 있고, 기네스 월드레코드에 등재되며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고 덧붙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방조제가 우리 고장 전라북도에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언니들과 함께 우리가 어른이 되면 새만금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니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물놀이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새만금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개학하고 나서 만날 하나뿐인 내 친구 도진이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다 이야기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첫 여름방학 2박 3일 여행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선

새만금 놀이터

전주교대군산부설초(전북 군산) 1학년
김가온

저에게 새만금은 엄청 큰 놀이터랍니다.

왜냐하면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저는 새만금 바닷길을 달려 섬으로 모험을 떠나 보기도 했고 그 섬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 "야호!" 하고 소리쳐 보기도 했어요. 해변에서 모래놀이도 하고 여름엔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물놀이도 했어요.

새만금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칼국수, 생선구이, 짜장면! 이라고 했더니 엄마는 군산은 짬뽕이지! 하고 말씀하시네요? 못 말리는 엄마의 짬뽕 사랑♡

물이 많이 빠지는 날엔 한 손엔 호미 다른 한 손엔 양동이를 들고 조개를 잡으러 출발! 동글동글 납작납작 길쭉길쭉 모양도 크기도 잡는 법도 다 다른 조개잡이. 내가 잡은 조개로 엄마가 요리를 해주시는데 어쩐지 다른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차를 타고 끝이 없을 것 같은 바닷길을 달리면 어쩐지 기분이 좋아져요. 아빠가 그럴 땐 "힐링된다"라고 하는 거래요.

새만금에 올 때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붉게 물드는 노을 옷을 입은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어요. 군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미있는 놀이터, 새만금 놀이터로 모두모두 놀러 오세요 :-)♡

특선

새만금, 황금빛 보물섬

전주교대전주부설초(전북 전주) 1학년
김예지

우리 가족은 얼마 전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다녀왔어요. 박물관에서 새만금 지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정말 재미있게 배웠답니다.

옛날에는 새만금이 그냥 넓은 갯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갯벌을 막아 간척 사업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거대하고 황량했던 갯벌이 점점 땅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제 새만금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어요. 첨단 기업들이 새만금에 공장을 세우고, 첨단 연구소도 들어서고 있대요. 또 바다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새만금에 친환경 도시를 만들면 좋겠어요. 태양전지판과 풍력발전기로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자전거를 타고 전기차를 이용해 공기도 깨끗해질 거예요.

또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멋질 것 같아요. 로봇 공장이나 드론 센터가 생기면 새만금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과학관과 생태박물관도 만들어져 새만금에 공장과 관광지가 많이 생기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해안 공원과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어 새만금은 부자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새만금이 발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 보면 정말 즐거워요. 새만금은 첨단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가득한 황금빛 보물섬이 될 거예요. 모두가 꿈꾸는 미래 도시가 새만금에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니 정말 신나요. 나의 미래 꿈도 새만금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새만금은 정말 신기하고 멋진 곳 같아요. 앞으로 새만금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해요.

특선

새만금 시간여행

전주서일초(전북 전주) 2학년
이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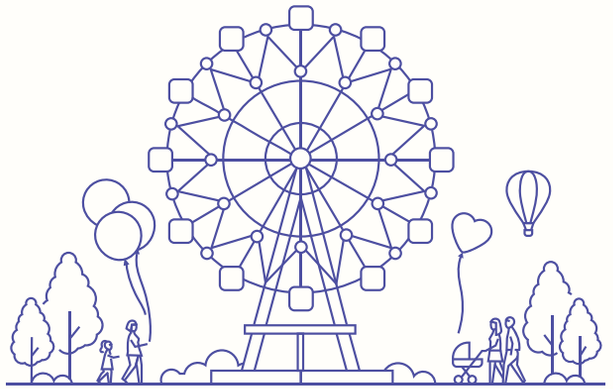
새로운 금이 쏟아지는 새만금. 새로운 금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보기 위해서 새만금의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여행을 떠나 볼게요. 새만금에 대한 저의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게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앗! 과거의 제가 보이네요! 3살 때 새만금 근처에서 조개를 잡고 있는 제가 보이네요. 차를 타고 새만금 방조제 길을 달렸어요. 다음, 저의 초등학교 1학년 때이네요. 우아! 잼버리가 열렸어요. 그땐 정말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잼버리 마스코트 '새버미' 키링을 샀어요. 매우 재미있었어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갈게요. 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보이네요.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네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보이네요! 안에는 새만금에 관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도 보이네요. 그 안엔 AR체험 기기가 있어요. 저는 나이가 안 돼서 체험을 못 했어요. 정말 슬펐어요. 새만금 방조제에 긴 길과 넓은 땅이 보여요.

자, 이제 미래로 가볼게요. 어! 지금은 새만금에 큰 놀이공원이 있어요. 놀이공원에 회전목마, 대관람차,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워터파크가 있네요. 옆에 구름 트램펄린이 있고, 구름과자 집이 있네요. 농장 체험장도 있네요. 바다 쪽에는 스킨스쿠버장도 있고, 유람선도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공항이 있네요. 모든 나라의 비행기가 다 있네요. 공항 옆에 우주센터도 있네요. 거기에서는 위성과 우주선을 띄울 수 있어요. 어! 에너지센터도 있네요!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조력 발전소, 수소 발전소들이 보여요. 150층짜리 건물이 보여요. 아파트, 과수원, 농지 등이 보여요.

이젠 다시 현재로 가볼게요. 전주에 살고 있는 제가 보이네요. 새만금은 어린 시절에 저에게 황금 같은 추억을 주었고, 현재는 금이 쏟아질 듯한 넓은 바다와 땅을 보았어요. 미래엔 상상만으로도 새로운 금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가 크면 새만금에 있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하고 싶어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요.



뉴코리아 새만금센터 견학기

특선

화정초(부산 북구) 3학년
곽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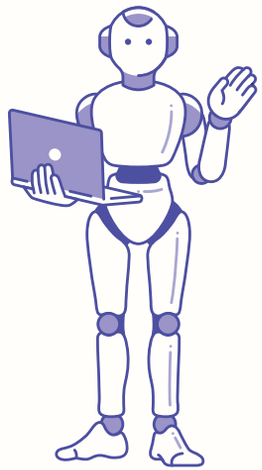
2044년 9월 15일 화요일, 오늘은 뉴코리아 새만금센터에 견학을 가는 날이다. 약 20년 전에 지어진 곳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들었다.

기차를 타고 도착하자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건물들이 모여있는 안에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다. 임산부, 어린아이들, 할머니, 수많은 로봇들이 넓은 건물 안을 즐겁고 행복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크게 3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저출산센터, 기후위기센터, 고령화센터였다.

처음에 저출산센터부터 둘러보게 되었는데 해설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길, 이곳에선 임신 시작부터 출산까지 산모와 태아의 모든 건강을 돌보면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준다고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인공지능 로봇들이 특별한 관리와 교육을 스스로 아이에 맞춰서 해준다고 한다. 엄마한테는 엄청 행복한 서비스가 아닐까 상상해 본다. 그리고 인공지능 헬스장에서 엄마들이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게 새만금센터에서는 가능하다니 놀랍다.

이번에는 기후위기센터인데, 로봇들이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궁금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니, 날씨를 예측하고 하늘에 빔을 쏘아 구름의 움직임을 바꾸고, 어떤 로봇들은 하늘에 뿌리면 비가 오거나 멈추는 약을 만들고 있고, 야외에서는 새만금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탄소를 엄청 세게 빨아들이는 인공지능 나무들을 교배해 초강력으로 탄소를 줄여주는 나무를 개발했는데, 그 나무들이 여기저기 심어지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센터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번쩍이는 기계 속에 누워 젊어지는 치료 같은 걸 받고 계셨다. 선생님께서 아픈 곳이나 질병들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치료도 해준다고 설명해 주셨다. 여기서도 인공지능 헬스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로봇 선생님들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렇게 넓은 땅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새만금센터에서 다 하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멋지게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특선

내친구 만금이

영만초(전북 익산) 3학년
손유진

만금아 오늘도 안녕?

어제 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나서 나는 아직도 웃고 있어. 너무너무 즐거웠나 봐.

아빠가 만금이란 친구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처음 박물관에 데리고 갔을 때 나는 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 너를 보러 지금까지 여러 번 갔었다는데 몰랐던 나는 너의 이름도 망금이로 알았지 뭐야. 박물관에 가서 너의 어렸을 적 사진도 보고 세계 곳곳에 있는 만금이의 친구들 이야기도 듣고 왔어.

나는 이제 겨우 열 살인데 너는 나보다 나이도 훨씬 더 많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고 있다고 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고 있는 만큼 그동안 속상하고 아픈 일도 많았겠지? 나는 그것도 만금이의 성공을 바라는 고마운 마음이라고 생각해.

만금이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우리 아빠가 너는 특별한 친구라 지금보다 더 크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은 일을 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도 커서 만금이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만큼 커버렸을 때 만금이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졌어.

어제 내가 본 만금이는 엄청 길고 긴 다리도 가지고 있었고 넓고 넓은 땅도 가지고 있는 부자였는데 내가 더 컸을 땐 만금이가 우주최강 부자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제 내가 만금이와 함께 했던 시간만큼 그때도 더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커나가길 바랄게. 친구들하고도 같이 와서 뛰어놀고 너를 소개해주고 자랑하고 싶어.

만금아~ 박물관에서 마주친 너의 모습은 너무너무 멋진 친구였어. 나도 너와 함께 멋지게 커 나갈 테니까 우리 지금보다 더 어른이 되어서 만나자. 그때도 나는 아빠, 엄마, 오빠와 함께 와서 어제처럼 너랑 놀다 갈 거야. 곧 또 만나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친구 만금아~^^

새만금에게 전하는 소원 일기

특선

군산미장초(전북 군산) 3학년
양예린

새만금을 떠올리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가족들과 방방을 타러 갔던 날이다. 아침 일찍 방방을 타러 가서 오빠랑 오후 늦게까지 방방을 탔는데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 이후에 새만금환경생태단지도 가보았고 방조제도 가보았는데, 이때는 내가 조금 컸을 때 가서 잘 기억할 수 있다. 새만금은 매우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곳이다. 우리 가족처럼 새만금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만금이 더 발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고 더 많이 찾아오겠지? 그래서 나는 새만금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써보고 싶다.

나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새만금에 아주 큰 물놀이장과 눈썰매장 등이 생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새만금에 더 재미있는 것들이 생길수록 사람들이 새만금에 더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전하면 사람들이 새만금을 더 아끼고 보호해야 할 텐데 잘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좋아할 만한 체험 부스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체험 부스도 만들면 엄마 아빠랑 같이 할 수도 있어서 좋겠지만 어린이 체험장이 먼저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체험을 하다가 배가 고플 수도 있으니 주변에 음식점이나 식당도 많아져서 새만금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우리 오빠 꿈이 요리사인데 오빠가 요리사가 돼서 나중에 새만금에 아주 크고 멋진 음식점을 만들면 어떨까?

나는 친구들과 스티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친구들과 놀러 가서 스티커 사진을 많이 찍어 추억에 남길 수 있으려면 큰 사진관처럼 마음껏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도 새만금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나중에 보면 새만금에서의 추억을 떠올려 다시 또 가고 싶어질 것 같다. 새만금 주변에 정원이나 공원, 벤치도 만들면 좋겠다.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쉴 수도 있고 꽃구경도 할 수 있으니 공원에 오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또 나는 새만금 주변에 우리 가족이 살 크고 멋진 집도 지어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허락한다면 강아지, 고양이도 함께 살고 싶다. 그리고 내 꿈은 화가이다. 멋진 미술관을 만들어 내가 그린 작품들을 새만금에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생각만 해도 너무 떨린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새만금은 얼마나 멋진 곳이 될까? 내 소원들이 꼭 이루어져서 세계에서 여행 오는 멋진 새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존하는 삶, “새만금에서 해내다”

특선

전주용와초(전북 전주) 3학년
이한율

나에게 새만금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웠다. 도대체 무슨 뜻이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끔 뉴스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다. 그래서 아빠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새만금이 우리에게 무얼 주는지 또 미래에는 어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 수 있었다.

옛날에 새만금은 아주 넓은 갯벌이었다고 한다. 아주 작은 조개나 생물들이 살아 숨 쉬고, 지금은 멸종 위기인 도요새 등 다양한 생물들이 편안히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런 터전을 2010년 사람들이 바다를 막고 간척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건물, 공장,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생물들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의 교육적인 장소로 변화하면서 체험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나 풍력발전소처럼 미래에 꼭 필요한 것들을 미리 배우고 느끼게 해주는 좋은 관광산업단지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은 바다의 만리장성이라 불릴 만큼 33.9km의 엄청난 길이를 자랑한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한다.

작년에 이모, 할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새만금 방조제를 쭉 따라 바다의 멋진 풍경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냥 바다가 예쁘고 멋지다는 생각만 했었다. 이렇게 크고 엄청난 길이를 뽐내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금도 한창 개발 중인 새만금이 점점 더 멋진 관광산업단지로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궁금하고 설렌다.

2023년 부안으로 우리는 가족여행을 갔었다. 그때 마침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성공적인 마무리는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나는 그 속에서 영국인도 만나고 함께 사진도 찍고 영국 배지도 받았었다. 지금도 내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정말 의미 있는 방학이었다.

나는 상상을 해보았다. 나는 모든 자동차를 정말 좋아한다. 작년에 아빠랑 고양 모터쇼를 다녀온 적이 있다. 전주에서 가기는 너무 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추억이었다. 하지만 다시 집으로 와야돼서 모든 차를 다 보지 못한 아쉬운 마음도 있었다. 이처럼 부안의 드넓은 곳에 세계 잼버리 축제를 연 것처럼 나는 세계 자동차 박람회를 열고 싶다. 모터쇼에는 없었던 벤틀리와 자동으로 가는 자동차까지 모두 다 가지고 올 것이다. 차를 좋아하지만 멀어서 갈 수 없는 나의 또래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 가까운 부안으로 와서 멋진 박람회를 만나보게 해주고 싶다.

이렇듯 새만금은 나의 꿈을 키워주는 꿈의 도시가 될 수도 있다. 또 천연기념물 원앙새와 같은 다양한 동식물들이 보호받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생태습지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멋진 새만금!

친환경적인 새만금 도시로 더 개발하고, 내가 좋아하는 개구리들이 폴짝폴짝 뛰어다닐 수 있는 새만금,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 쉬고 뛰어놀 수 있는 많은 터전을 새만금을 통해 만들어야겠다.

특선

자랑스러운 새만금

우촌초(서울 성북) 3학년
허유리

지난 6월 우리 가족은 군산 여행을 다녀왔다. 엄청나게 긴 다리를 지나 신시도에 있는 몽돌해수욕장을 만났는데 엄마는 이 긴 다리가 새만금 간척 사업 때 만들어진 방조제라고 하셨다. 길이가 33.9km인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는 세상의 놀라운 기록들을 정리해 놓은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다는 설명도 해 주셨다.

그런데 간척 사업과 방조제라는 말이 나에겐 너무 어려워서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방조제 이름이 왜 새만금인지도 궁금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엄마와 함께 새만금에 대해 찾아보았다. 간척은 바다의 일부를 둑으로 막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땅으로 만드는 것인데 바닷물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운 둑을 방조제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만금이란 이름의 뜻도 재미있었다. 새만금은 전라도에서 가장 넓은 만경평야의 첫 글자와 김제평야의 첫 글자를 합친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새만금의 뜻을 조사하며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된 때가 2010년인데 2015년에 태어난 나보다 5살이나 언니라는 사실도 신기하다. 처음 새만금은 농사를 짓기 위한 땅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몇 년 뒤에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만들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 식량이 많아져서 개발계획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됐다.

그런데 새만금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던 중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철새가 싸놓은 똥으로 태양광 발전판이 뒤덮어져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더럽혀진 발전판을 씻어내기 위해 독한 약물로 청소를 하고 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새들이 싫어하는 소리로 새들을 내쫓으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며 문득 독한 약물이 갯벌과 바다를 못 쓰게 만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게 됐다. 우리는 개발을 하기 위해 갯벌과 맑은 물을 더럽히고 철새들의 먹이와 집을 빼앗아 버렸다. 쫓아낸 철새들의 집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세웠다면 새들이 똥을 싸서 발전을 어렵게 한다고 해도 새들을 탓할 수는 없지 않을까?

어부들의 피해도 크다는 글도 읽었다. 갯벌이 오염되어 철새들의 먹이도 사라지고 어부들이 잡았던 조개나 낙지, 게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앞으로 새만금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지금보다 더 발전된 새만금이 궁금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꼭 발전된 모습이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다. 새들이 찾아오고 어부들이 조개를 캐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갯벌과 들판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새들을 억지로 내쫓거나 바다를 오염시키는 방법 말고 새들과 사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른이 되면 무조건 개발을 하는 일 보다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힘쓰고 싶다. 우리가 사는 바다와 산과 들판을 지키고 사랑하며 자연과 어울려 지내고 싶다.

새만금은 많은 노력으로 새롭게 생긴 신기한 땅이다. 이 땅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땅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과 함께 보존에 힘쓴 새만금을 만들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알려진 자랑스러운 우리의 새만금이 환경을 잘 보전한 최고의 모습으로 개발되어 기네스북에 다시 오를 수 있기를 기도한다.

작고 약한
새끼 손가락 같은 새만금

특선

고수초(전북 고창) 4학년
김성훈

나는 새만금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새만금에 자주 나들이 갔던 기억이 있다. 어렸을 때라 많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33.9km에 이르는 길고 긴 방조제를 보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처럼 보여서 가슴 한편이 뭉클했고,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이 가득한 곳이다.

좀 더 시간이 지나 초등학생이 되면서는 새만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어 밀물과 썰물의 피해를 막고,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에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내 마음속에 물결쳤다. 새만금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고, 기대해 보며 종종 뉴스에 나오는 새만금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작년에 잼버리를 개최하면서 뜨거운 이슈에 올랐던 새만금.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 행사 중 하나다. 그 큰 국제 행사를 새만금에서 개최한다고 했을 때 내가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엄청 기대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다르게 잼버리 기간 동안 매일같이 뉴스와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에 오르내리던 새만금…. 모두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이슈가 되었기에, 난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서로를 탓하기 바빴고,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서 이미 매립이 완료되어 땅이 굳은 곳에 유치했더라면 준비하는 시간과 예산 또한 모자람 없이 준비가 잘 되었을 텐데, 뻘이 남아 있는 곳으로 정해서 간척지를 새로 매립하고, 그에 따른 시간과 예산 낭비로 제대로 된 준비는 아예 처음부터 할 수 없었던 거 같다. 그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처럼 여기저기 둘러대기 바쁜 어른들의 행동에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에게 내가 느끼는 새만금의 웅장함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새만금 잼버리에 함께 했던 각국의 청소년들에겐 새만금은 그저 덥고, 더럽고, 끔찍한 곳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걸 내어준 새만금의 잘못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고, 더 속상했던….

이제 나에게 새만금이란 세 글자는 손가락 중 가장 작고, 약한 새끼손가락과도 같다. 없어서는 안 되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그렇지만 다시 기대해 본다.

언젠가는 내가 새만금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그날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행복한 추억이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날을….

세계 각국에 새만금 홍보관이 세워지고 문전성시 이뤄지는 그날을….

각종 뉴스와 포털사이트에 새만금에 대한 좋은 기사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을….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는 작고 약한 새끼손가락 같은 새만금을 마음속으로 어루만져 본다.

새만금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특선

인천신정초(인천 연수) 4학년
김아인

올해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변산반도로 여행을 갔다. 변산반도에 가기 전, 군산 선유도에 들어가는 길에 여러 작은 섬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었다. 긴 다리가 마치 인천과 영종도를 이어주는 인천대교와 비슷한 것 같았다. 다리 위를 달리며 창문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 너무 멋져서 감탄 밖에 나오지 않았다. 엄마가 지도를 보며 설명해 주셨는데 이 긴 다리가 바로 새만금 방조제라고 한다. 지도를 보니 정말로 긴 다리가 표시돼 있었다.

쭉 뻗은 다리를 따라가다 보니 우리 가족은 어느새 선유도 해수욕장에 도착해 있었다. 내가 느낀 선유도 해수욕장을 점수로 평가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다. 우리 가족만의 비밀 장소로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선유도 해수욕장은 풍경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물도 맑고 작지만 조용해서 편안하고 아늑한 기분이 들었다. 파도도 세지 않아서 동생과 내가 놀기에도 좋았다. 신나게 놀고 아쉽지만 다음에 꼭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

우리 가족은 변산반도에 있는 숙소로 가는 길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들렀다. 박물관에 있던 새만금 방조제에 관한 설명을 읽어보니 새만금도 송도처럼 간척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새만금의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33.9km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신기했다. 그리고 새만금은 2050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지금도 계속 간척을 하고 있다고 한다. 2050년이면 내가 37살인데, 그때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아이들과 오면 새만금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궁금하다. 내 아이들에게도 내가 과거에 본 새만금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 송도도 계속해서 땅을 메우며 간척을 하고 있는데, 간척에 대해서 알고 나니 내가 살고 있는 송도와 더 비슷해서 친근하고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옛날부터 간척을 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네덜란드는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20세기에 걸쳐 지금까지도 간척을 해왔는데 그림으로 보니 땅의 거의 절반이 간척한 것이었다. 네덜란드는 풍차를 이용해서 간척을 했다고 한다. 풍차는 나무를 자르거나 곡식을 빻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풍차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퍼 올려 간척을 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 긴 새만금의 방조제를 사람들이 일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훨씬 더 인상 깊었다.

처음에는 새만금과 간척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곳에 오니 내가 마치 간척박사가 된 기분이었다. 빨리 친구들에게 내가 다녀온 새만금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새만금은 정말 대단한 곳인 것 같다. 창밖에 보이는 풍경들도 너무 아름다웠고, 바다가 깨끗해 놀기 좋은 곳, 내가 좋아하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새만금이다. 내가 새만금에서 했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도 새만금에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여행을 통해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새만금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우리나라의 빛나는 보물이다. 새만금이 관광지가 되어 너도나도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진다. 2050년, 새만금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특선

친환경 스마트 시티, 새만금

평산초(경남 창원) 4학년
서은성

방학 숙제를 하다 인터넷으로 새만금을 만나게 되었다. 새만금은 원래 갯벌이었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멋진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만금이라는 특별한 이름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큰 갯벌이었지만 지금은 더 멋진 친환경 도시가 되기 위해 공사 중이고 미래의 새만금은 내 생각보다 훨씬 의미 있는 친환경 도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을 생각하니 새만금이 더욱더 궁금해지고 빛나 보였다.

새만금의 가장 훌륭한 부분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핵심보전지구라는 곳에서 새만금에 살고 있는 수달, 삵, 철새를 위한 생태습지를 만들어주고, 완충관찰지구에서는 관찰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생태교육체험지구는 여러 놀이터와 시설이 있어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라니! 발전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자연과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역시 친환경 도시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느꼈다. 이런 점은 꼭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새만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새만금이 스마트시티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스마트시티는 말 그대로 똑똑한 도시,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람들을 위해 많은 스마트 시스템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새만금도 미래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가 되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멋진 도시가 우리나라에 생긴다니 나도 덩달아 들떠진다. 갯벌 새만금의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똑똑하게 변신하는 그날을 기다려본다.

새만금은 원래 엄청 큰 갯벌이었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다. 조개와 다양한 철새가 살고 있어서 동물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좋고 고마운 곳이었다고도 하셨다. 갯벌은 새만금 주민들에게 식재료와 일터를 주는 곳, 그게 새만금 갯벌이었다. 그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갔다.

지금의 새만금은 멋진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너무도 궁금해진다. 동물들의 편안한 보금자리와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함께 있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다. 인간의 도시가 점점 커져서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위해 동물들의 집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의 집, 자연과 사람의 집, 도시가 함께 하며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그런 곳이 생기기를 꿈꿔 왔다. 그런데 새만금 도시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무척 기쁘고 뿌듯했다.

얼핏 보면 친환경이라는 단어와 스마트시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스마트시티와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반대말 같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희망적인 미래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스마트시티에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나는 경남에 살아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글쓰기를 하면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너무도 가보고 싶어졌다. 지금의 새만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미래의 새만금이 너무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새만금에 관심을 가지고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궁금해한다면 새만금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

새만금 용왕과 소녀

군산서해초(전북 군산) 5학년
이한별

어느 날, 위대한 용왕이 분노에 휩싸인다. 용왕이 살던 바다에 새로운 땅이 생겼기 때문이다.

"으… 감히 나 용왕의 궁에 새로운 섬을 만들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 땅을 없애야겠어! 생각해 보니 이 땅의 이름을 모르는군. 어디 한번 용왕의 힘으로 이 땅의 이름을 알아볼까? 오호라~ 이 땅의 이름은 새만금이로구나! 자, 그럼 이제 없애러 가볼까? 허허"

용왕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게 한 새만금을 없애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물속에 사는 용왕이 땅 위로 가려면 여의주가 필요했다. 여의주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깊은 바다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잘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의주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공사를 시작할 때 큰 진동으로 인해 여의주가 떠내려가 버렸던 것이다. 용왕은 불안해졌다. 여의주가 없으면 간단한 능력은 쓸 수 있지만 강한 능력은 쓸 수 없고 땅 위로 올라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용왕이 조마조마하는 그 순간, 갑자기 물밖에서 환한 빛이 났다. 용왕이 올라가 보니 어떤 아름다운 소녀가 여의주를 들고 있었다.

"거기, 그 구슬은 내 건데 좀 돌려주겠소?"

소녀는 물에서 나온 용왕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여의주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용왕의 몸에서 빛이 나면서 용왕이 육지 위로 올라왔다.

용왕은 소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착한 마음씨를 보고 새만금을 없애지 않겠다고 소녀와 약속했다. 그렇게 소녀와 용왕은 매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좋아하게 됐다. 소녀는 새만금이 만들어진 후 할머니와 새만금에서 작은 꽃집을 하고 있었다. 용왕은 비록 자신의 삶의 터전을 조금 잃게 되었지만 소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에서 활기차게 생활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새만금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만금에 엄청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용왕은 소녀와 소녀의 할머니, 그리고 새만금 사람들이 걱정되어 태풍을 막을 준비를 했다.

오늘도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바람과 함께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소녀는 자신의 집에 있는 할머니가 걱정됐다. 갑자기 나무가 뽑히고, 집들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용왕은 소녀의 가족과 새만금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태풍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용왕이 조금 밀리는 듯했다. 용왕은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용왕은 여의주의 힘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또 다른 태풍이 오더니 원래 있던 태풍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 태풍은 바로 용왕이었다. 용왕이 여의주의 힘으로 더 강한 태풍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용왕은 온 힘을 다해 태풍과 맞서 싸웠고 잠시 후 엄청나게 큰 소리와 함께 진동이 느껴졌다. 바로 용왕이 태풍을 몰아낸 것이다.

소녀는 용왕이 태풍을 무찔러서 굉장히 기뻤다. 하지만 용왕이 옅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나는 여의주의 힘을 모두 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소."

"뭐라고요? 용왕님은 저랑 평생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정말 미안하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소. 나의 진정한 여의주는 바로 당신이었소."

"용왕님!"

마지막 말을 마친 순간 용왕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 그러자 하늘이 밝아지면서 비가 내렸다. 소녀는 믿을 수 없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눈물이 되어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녀는 꽃집에서 꽃과 함께 용왕 관련 기념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소녀는 용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항상 함께하기 위해 용왕 관련 기념품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소녀는 용왕이 새만금 주민들과 자신에게 해준 일을 잊지 않았다. 아니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새만금 주민들도 용왕의 희생으로 새만금이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매년 용왕이 사라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소녀는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용왕을 생각하며 슬픔이 아닌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새만금을 지킨 용왕의 이야기를 전한다. 용왕 덕에 이렇게 새만금이 평화롭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용왕을 기리기 위해 오늘도 새만금은 바쁘다.

특선

걱정에서 희망으로 바뀐 소금땅

광주북초(광주 북구) 5학년

조재훈

우연히 tv에서 리포터가 맛조개를 잡는 모습을 본 나는 맛조개를 잡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부모님께 갯벌에 꼭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유기물질이 풍부하여 맛조개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서해안 변산으로 떠났다. 역시나 소문대로 변산의 갯벌은 드넓고 채석강은 그림 속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아침 7시부터 해루질을 시작해 두 시간을 신나게 잡고 채석강도 둘러본 우리는 근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하였다.

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거대한 풍력발전기를 보니 제주도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늘도 뭉게뭉게 솜사탕처럼 달콤해 보였다. 뻥뻥 뚫린 시원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 박물관의 옥상정원이 보였다. 꽃을 좋아하는 엄마께서는 "오, 진짜 예쁘다. 더워도 꼭 보러 가자!"라고 외치셨고, 우리 가족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빛을 뚫고 푸르름이 가득한 옥상정원을 둘러보았다.

나는 자연을 느끼며 거닐어보라는 건축가의 의도와 달리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축지법을 이용해 쏜살같이 달려 실내로 들어왔다. 실내의 에어컨 바람은 너무나도 시원했다. 주차장에 있던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인가 싶었다. 처음 건물 입구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량 표시판이 있는 것을 보니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같아 미래를 살아갈 나로서는 무척 흐뭇했다. 왠지 공기가 맑고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운이 좋게 나는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보글보글 소금 만들기'와 '염생식물

키링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이때 염생식물(퉁퉁마디, 해홍나물 등)을 처음 알게 되었고 해설사 선생님의 권유로 맛본 식물에서 바닷물처럼 짠맛이 난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다. 그런데 이 짭짤하고 약해 보이는 염생식물이 해안생물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연안 침식 방지, 오염물질 정화 등 생태계에서 궂은일을 척척 한다고 하니 기특했다. 척박한 소금땅에서 식물이 자라다니 놀랍기만 했다.

더 놀란 것은 염생식물뿐만 아니라 새만금 간척지에서는 벼농사, 예쁜 나리꽃도 기른다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다. 사실 부모님께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소중한 갯벌을 막아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고 돈이 많이 드는 애물단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 새만금에 와보니 다양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었고, 근처 갯벌에도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물관의 전시와 체험을 통해 나는 부모님의 우려와는 다른 새만금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려말부터 강화도에 간척사업을 하여 농경지를 만들어 1,000여 섬을 생산할 수 있는 소중한 농토를 만들었다는 점과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바다에 33.9km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우리나라의 기술력만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앞으로 새만금은 아름다운 꽃과 다이빙 시설을 만들어 관광객을 늘리고, 4차 산업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했다.

아직도 곳곳에 공사 중이지만 거대한 크레인들 사이사이로 미래의 모습이 그려진다. 수많은 스마트 첨단 회사들, 황금빛 논과 샛노랗고 화려한 갖가지 꽃, 동물들이 뛰어노는 푸르른 숲, 파도에 몸을 맡긴 서퍼들, 관광을 하러 온 외국인들의 모습. 모두가 찾아오는 그런 새만금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직접 와서 보고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 새만금은 눈부신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고….

특선

새만금을 달리다

고헌초(울산 북구) 6학년
김현서

전북 부안, 나는 이곳이 낯설지가 않다. 매년 두 번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찾아오면 엄마와 나, 그리고 남동생은 울산에서 5시간을 달려 부안 할머니댁으로 가곤 했다.

2022년 여름방학, 너무 더워 할머니댁에서 노릇노릇한 고등어구이가 되어 가고 있을 때, 엄마가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 가자고 하셨다. 평소에도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새만금환경생태단지는 처음 들어서, 그곳이 어떤 곳일까? 궁금했다.

바다를 메워 육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새만금 안에 자연이 살아 숨 쉬도록 만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환경생태단지라 하니 나는 그 안이 매우 궁금해졌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3시, 작은 키의 내가 봐도 환경생태단지는 너무나 넓었다. 축구장 면적의 110배라니, 그곳을 걷고 걷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친절한 해설사 선생님께서 카트를 태워주신다 하셨다.

엄마와 나와 내 동생은, 난생처음 카트를 타고 환경생태단지를 달렸다. 태양은 뜨거웠지만 바람은 너무 시원했고 카트를 타고 생태단지를 둘러보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라 생각했다. 해설사 선생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카트를 멈추고 설명을 해주셨다. 한 지점에서는 우리에게 돋보기까지 주시며 직접 동물들의 발자국도 보게 해주셨다. 생물서식습지를 책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직접 눈으로 보며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까지 들으니 이곳은 정말 자연에, 자연에 의한, 자연을 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더운 날씨여서 에어컨이 간절했지만 나와 내 동생은 이곳을 더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더위에 자전거를 타고 스탬프 투어를 하며 환경생태단지 구석구석을 돌았다. 자연의 모습 그대로인 습지를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드넓은 곳에서 야생 동물들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2024년 1월 겨울방학, 나는 또다시 부안 할머니댁에 갔다.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 동생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차에 관심이 많은 동생의 아이디어로 새만금 방조제를 가보기로 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연결하는 세상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니, 그 모습이 어떠할지 궁금했다.

새만금 방조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본 여러 도로와는 많이 달라서 '정말 이게 도로인가, 작품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쭉 뻗은 도로를 달리며 차 안에서 드넓은 바다와 섬들을 보고 있으니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파였지만 바다와 섬을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 창문을 내리니 바다 냄새가 내 코로 훅 들어왔다. 내 마음까지 선명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새만금'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금을 캐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족과 새만금 구석구석을 여행하다 보니 이제야 새만금이 주는 의미를 알 것 같다.

마라톤을 하듯 오랜 시간을 달려온 새만금이 자연도 품고 사람도 품고 미래까지 품은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

산외초(전북 정읍) 6학년
박소희

"다녀오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인사를 하고 무심결에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피곤한 듯 풀린 눈과 가득 내려온 다크서클. 나는 그런 표정에 새삼 놀랐다. 아빠의 일이 힘들단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알고 있었지만 항상 모른 척해왔다. 그렇다고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아빠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항상 우리 아빠를 사랑했고 항상 주말 없이 일하는 모습이 안쓰럽고 미안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고마움, 미안함, 사랑 따위의 감정을 마음 가득 안고 있어도 그저 초등학생인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리가 없다. 그때 그 생각에서 새만금이 떠오른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무의식 속의 생각 중에 아주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생각이었다.

새만금 방조제.

선생님이 얘기해주셨던 기억이 있다. '가면 아빠의 기분도 조금 나아지려나…' 생각했다. 평소 아빠의 성격을 보면 딱히 확신이 들지 않았다. 같이 가준다는 보장도 없다. 의미 없는 짓일 것 같다. 새만금이 내 생각에 큰 비중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게 꼭 달라붙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도 아직 새만금에 미련이 남아 있었다.

인터넷에 들어갔다.

검색. 새만금 방조제.

검색 결과가 나온다.

주르륵 사진이 떴다. 그중 하나를 눌러보았다.

뻥 뚫린 시원한 장소.

그 사진은 무언가 마법이라도 걸린 듯 내 부정적인 생각들을 싹 지워버렸다. 뇌가 시원해진 기분이다. 그리고 나는 뭔가 홀린 듯이 아빠에게 가서 말했다.

"아빠. 우리 새만금 방조제로 드라이브 가실래요?"

나는 당당하게 말해놓고선 후회했다. 마치 사진을 보고 나에게 걸린 마법이 풀린 것 같았다. 현실이 느껴졌다.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다니. 왜이러는 거야? 아빠 피곤하실텐데. 아 나 왜이러지.' 온갖 생각이 나를 뒤덮었다.

거절하시겠지.

"……"

아빠의 침묵. 왠지 부정적인 침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약간의 희망을 품었다.

"미안… 아빠 오늘 쉬고 싶어서."

'아… 이럴 줄 알았어. 하긴, 여기에 간다 해도 아빠의 피곤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표정이 자연스레 굳었다.

"……"

아빠가 내 얼굴을 쳐다봤다. 아빠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내일 가자. 알겠지?"

아빠가 수락해 줬지만 좋아서 한 것 같지는 않았다. 괜한 짓을 했나. 후회가 됐다. 내일이 두려웠다.

아빠가 약속한 내일이 왔다. 오늘은 아빠와 새만금 방조제로 드라이브를 간다. '드라이브를 가서 아빠가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부담이 생겼다. 걱정과 부담을 가진 채로 차에 탔다.

우리는 새만금 방조제로 갔다. 우리의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도로를 보니 입이 떡 벌어졌다. 나는 감탄하다 아빠의 얼굴을 보았다. 아빠도 좋아하실까?

"……"

방조제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약간의 피곤과 기쁨이 있었다. 예상한 것보다 좋은 반응에 마음이 놓였고 기대 이상의 새만금 방조제 모습에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와아!"

아빠는 입가에 미소를 걸친 채 감탄을 내뱉었다. 아빠의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안심했다.

"아빠, 여기 되게 멋지지 않나요?"

나는 약간의 용기를 내 말을 꺼냈다.

"그래 정말 멋지구나~"

말을 하는 아빠의 표정이 좋아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곳에도 가끔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흥분해서 여러 말을 꺼냈다. 멋진 곳에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빠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니 정말 좋았다. 우리는 드라이브 하는 동안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40분간의 즐거웠던 드라이브가 끝났다. 우리는 집에 돌아왔다.

"고맙고 미안하구나. 요즘 피곤했던 걸 숨기지 못하고 신경 쓰이게 했구나."

아빠는 머쓱한 표정으로 말하셨다.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다.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아빠를 보며 웃어주었다.

아빠의 피곤을 없애준 새만금 방조제에게 고마웠다. 이날 본 새만금 방조제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아빠와의 추억이 됐다.

꽃과 가시를 모두 가진 바다의 장미, '새만금'

특선

화산초(전북 완주) 6학년
이하랑

아침부터 우리 집은 차로 1시간 30분 거리의 김제, 부안, 군산에 있는 새만금을 가기 위해 분주했다. 엄마께서 아침에 새만금에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작년 여름 잼버리를 보기 위해 새만금에 갔는데, 너무 덥고 위험하다는 아빠의 반대로 밖에서 텐트만 보고 왔던 기억이 나서 처음에는 가기 싫었으나 부모님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람하고 나서 바로 해수욕장에서 놀자고 하셔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새만금으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부모님께서 새만금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 보여 주셨다. 영상에서는 거의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을 언급하고 있었다. "천연기념물들은 줄어들고, 갯벌은 점점 데드존으로 변해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군산공항은 이용 가치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잼버리사건 때문에 새만금에 대한 인식은 정말 안 좋아 보였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새만금은 단점 투성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기 시작한 것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주차장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주차장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러 척의 배와 갯벌 앞에서 맡은 공기는 영상에서처럼 나쁘지 않았다. 심지어 여름이 끝나갈 쯤이어서 그런지 상쾌하기까지 했다. 우리 가족은 박물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간척지 발전의 역사와 새만금 간척지가 시작된 이유 및 장점들에 대한 여러 내용들과 많은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그다음 바로 옆 홍보관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바꿔놓은 위대한 순간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 그에 잇따른 피땀과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19년이나 걸렸다는 것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공부한 우리들을 위한 보상, 갯벌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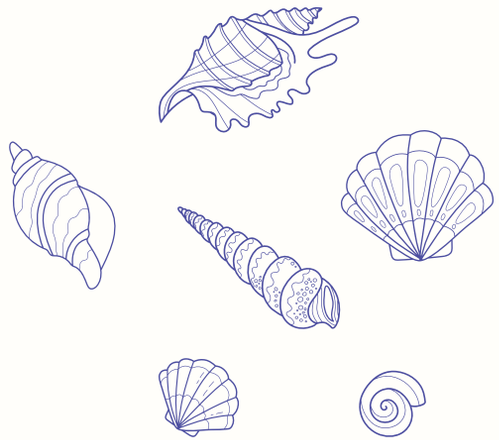
차로 7분 정도 달리니 멋진 변산해수욕장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물이 빠질 때까지는 해변에서 놀다가 물이 빠지고 나서는 가족 다 같이 걸어서 작은 섬으로 가서 해산물들을 모두 정벌했다. 조개를 캘 때와 고둥과 게를 잡을 때는 우리 가족은 새만금을 만든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이었고, 그 결과 갯벌에겐 미안하지만 엄청난 양의 조개와 고둥을 수확할 수 있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새만금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다. '새만금 간척지가 필요하긴 했구나~!'라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굳이 생명들까지 죽이며 이렇게 해야 했나'라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새만금이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분간하기 힘들어 가족의 힘을 빌리기로 했으나, 제각각 의견이 달라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고민 끝에 장점이 더 많다고 결론을 내렸다. 장점을 생각하니 미래의 새만금이 우리 아빠 회사가 있는 간척지로 만든 인천의 송도 같은 이미지가 그려졌다. 높은 빌딩과 공원이 잘 되어 있는 송도보다 더 멋진 곳으로 바뀔 수 있고, 바다에는 전기배가 떠다니고 넓은 땅에는 먹거리가 가득한 평야와 전기열차들이 달리는 그림도 그려졌다. 새만금홍보관의 전망대에서 우연히 보았던 간척지에서 뛰어다닌 노루와 같은 동물 친구들이 많은 멋진 새만금도 머리 속으로 그려 보았다.

현재 새만금은 아직 잼버리,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다. 하지

만 잼버리와 같은 실수는 지나간 것이고, 여러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다 보면 기존에 있던 장점들이 드러나 더 이쁜 꽃을 피우리라 믿는다. 옛날 전라도의 중심지였던 전주를 생각하며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가 되고, 서울 옆에 있는 송도처럼 전주 옆에 있는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먹거리 들판, 무역도시, 첨단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새만금 파이팅!



특선

할머니 집 가는 길

화도초(경기 남양주) 6학년
임유진

"수민아, 아직 멀었니? 얼른 준비해!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지."

아침부터 엄마 잔소리 폭탄이 펑펑 터졌다.

"나, 진짜 안 가면 안 돼? 혼자 있을 수 있다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는 어림없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건 좋다. 하지만 할머니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들다. 좁은 차 안에서 몇 시간씩 있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다. 답답해서 숨이 막히고, 멀미도 한다.

"아, 진짜로 가기 싫다."

엄마가 들리지 않도록 혼잣말을 했다. 내 표정을 살핀 아빠가 나에게 말했다.

"오늘은 덜 힘들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빠 차에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날지 않는 이상, 달라질 건 없을 거다. 아빠가 괜히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그러는 말이라 생각했다.

출발했다. 스마트폰을 잠깐 보다가 어지러워서 눈을 감았다. 잠도 오지 않았다.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자면 좋겠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구경했다. 휴게소 한 번 들린 후에, 엄마 대신 내가 조수석에 앉았다.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빠, 내비게이션이 고장 났나 봐. 할머니 집 가는 길이 한 시간이나 줄어 있어."

"고장 난 거 아닌데? 이제 할머니 집 가는 길이 빨라졌어."

"왜? 정말로 하늘을 날기라도 할 거야?"

엉뚱한 상상이 입 밖으로 나왔다. 아빠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허허 웃었다.

"이제 보면 알 거야. 하늘길보다 더 멋진 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참을 달리다 나는 낯선 바깥 풍경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빠, 우리 할머니 집 가는 거 맞아? 길이 낯설어."

"낯설겠지. 우리는 지금 바다 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바다냐고 소리쳤다. 아빠가 나를 바보라 여기고 놀리는 것만 같았다.

"아빠! 그만해! 계속 그러면 나 화낼 거야."

목소리를 낮춰서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는 헛기침을 하더니 입을 뗐다.

"수민아, 새만금이라고 들어 봤니?"

"응, 들어봤어. 뉴스에서도 봤고. 우와~ 그럼 우리 지금 새만금으로 만들어진 도로 위를 달리는 거야?"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다.

"바다를 흙으로 메꿔서 이런 걸 만들다니! 정말 놀라워."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다가 어디로 숨어 버렸을까 궁금했다. 하지만 엄마는 새만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새만금을 만들면서 바다속에 사는 생물들이 갈 곳을 잃었어.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긴 거지."

바다속 생물들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동네도 재건축을 할 때, 사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했었다. 어렸을 때지만, 그때는 마음이 슬펐다. 정들었던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새만금을 위해서 생물들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집을 빼앗았으니….
너무 미안했다. 내가 한숨을 쉬자 아빠가 말했다.

"새만금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단다. 새만금은 도로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과 철도도 만드니까. 그리고 항공로도 만들고 있대."

그래도 자꾸만 바다속 생물들이 신경 쓰였다.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 집 가는 길이 빨라졌다고 좋아했던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새만금으로 바닷물을 막는 바람에 수질도 오염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누구니? 문제를 기회로 삼는 대한민국이잖아. 바다 생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수질 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하고 있단다."

"진짜? 정말이죠?"

미안했던 마음이 한풀 꺾였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몫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갑자기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런 편리함을 주는 새만금이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사는 만큼 바다속 생물들도 잘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사는 집을 내주었으니까.

세계의 중심, 우리의 새만금

특선

기지초(충남 당진) 6학년
임하율

6학년 1학기 때, 사회 수행평가로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한 글쓰기를 한 적이 있었다. 지구온난화의 발생 원인과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했다.

농작물 생산량 감소, 자연재해 증가, 해양 생태계의 파괴 등 지구온난화의 여러 위험성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중에서 해수면 상승이 가장 무섭게 느껴졌다.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하면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등의 산악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을 상승시키는데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이 침몰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며 부산과 인천 등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 바닷물 속에 가라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이 전쟁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함인데, 전체 지구의 29% 밖에 되지 않는 육지의 일부가 물에 잠긴다면 사람들은 더 치열하게 전쟁을 할 것이 뻔하다.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지난해 여름 가족여행으로 갔었던 새만금 방조제가 떠올랐다. 땅을 지키려면 먼저,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보다 더 높은 방조제를 만드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1년 11월 28일부터 19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0년 4월 27일에 완성된 새만금 방조제는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을 10만 140㎢에서 10만 541㎢로 0.4%나 더 넓혀 주었다. 우리 미래의 터전이 될 땅을 우리 스스로 넓혀 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경이로운 일이다. 33.9km의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보다 1,400m가 더 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새만금 방조제가 있다는 것이 무척 뿌듯하게 느껴졌다.

친구들은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것만 정리했는데, 나는 환경보호와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예로 들어,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 육지를 지켜낼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선생님께서는 지구온난화의 해결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폭넓게 조사했다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다.

새만금 방조제를 항공사진으로 보면 마치 거대한 새 한 마리가 푸른 이불 위에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새만금 방조제를 더 넓혀서 세계 각국에서 이용하는 허브공항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아빠에게 말씀드렸더니 무척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 가족은 추석 연휴에 다시 새만금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세계를 향해 날아갈 거대한 새, 새만금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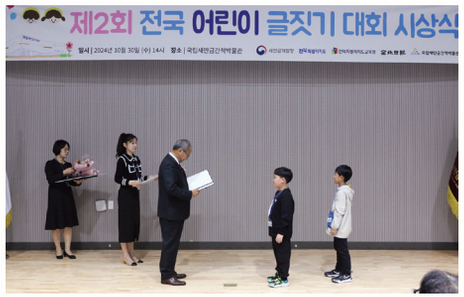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 목　　적 : 새만금에 역사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 확산
- 주　　최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 후　　원 :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일보
- 주　　제 : 새만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소재로 자유롭게 선정
- 대　　상 : 전국 초등학생 / 동 연령대의 어린이
- 심사위원 : 강대혁, 기세원, 김영, 염석호, 임미성, 장교철, 전순자, 최영환, 최정현

추진 경과

- 작품접수 : 2024. 7. 15.(월) ~ 9. 13.(금)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현장), 우편 접수
- 1차 심사 : 2024. 9. 25.(수) ~ 9. 29.(일) *서면심사
- 2차 심사 : 2024. 10. 8.(화)
- 공개검증 : 2024. 10. 11.(금) ~ 10. 20.(일), 10일간
- 시 상 식 : 2024. 10. 30.(수) 14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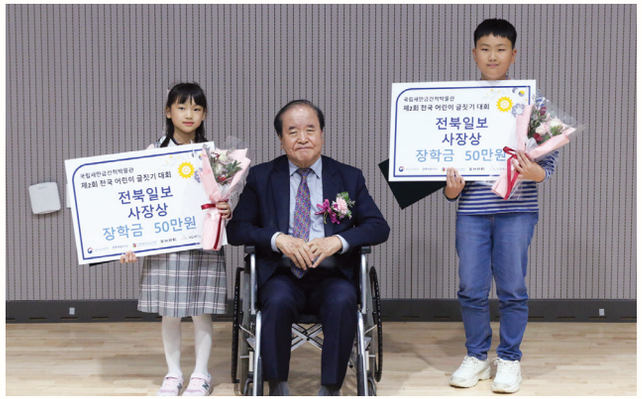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관장상
장학금 30만
전북일보
사장상
장학금 50만원
새만금개발청
청장상
장학금 100만원

새만금간척박물관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상
장학금 50만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상
장학금 50만원

시상식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상
장학금 50만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전북일보
사장상
장학금 50만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심사위원

기세원 심사위원

어린이는 꽃이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새시대를 이끌어갈 보물들이다.
광활한 새만금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하며, 한땀한땀 역사를 써나가야 할 미래의 인적 자원들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을 감안할때 금번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실시한 이번 어린이글짓기 대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출품한 어린이들 작품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관심은 물론 앞으로의 발전과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들을 접하고, 새만금의 무한한 희망을 보았다.
새만금의 꿈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관심으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앞으로 이런 대회가 꾸준히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새만금간척박물관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염석호 심사위원

새만금의 한 섬이 태어난 소년에게서 별이 뜬 밤에 섬으로 수 많은 물고기들이 다가와 노래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고 꿈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년처럼 여러분들도 이곳 새만금에서 멋진 꿈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미성 심사위원

어린이들이 새만금을 보며 쓴 글들을 읽어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편 한 편 각자의 생각의 씨앗들이 단단한 글로 여물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이 바다를 품은 새만금, 넘실대는 새바람이 불어올 새만금이어서 좋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꿈구며 바라본대로 가슴뛰는 즐거운 일이 가득한 우리 새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교철 심사위원

새만금은 아이들에게 꿈이었습니다. 때 묻지 않은 광목천에 그 꿈을 빚어서 풀어놨습니다. 아이들이 쏟아놓은 새만금 이야기는 무지개였습니다. 여러 빛깔의 목소리를 잘 키워내면 천상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새만금 물결을 타고 희망의 물길로 이어져 끝내는 새로운 역사로 우뚝 서리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글 읽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전순자 심사위원

무한한 꿈을 가진 어린이들의 상상과 미래 세계에 대한 희망을 표현해 준 어린이들의 글을 보면서 반가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넘어 세계의 역사적 명소로서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웅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글 속에 나타난 어린이들의 꿈처럼 머지않은 시일 안에 새만금 간척사업이 빠르게 진척되고 널리 홍보되어 무한한 자원을 재창출할 수 있는 문화 산업 관광지로서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길 고대합니다.

최영환 심사위원

참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우리네 지구가 점점 오염되고 황폐해되고 있지요. 그래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근심 걱정이 쌓여만 갔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의 다짐의 글, 실천의 글을 대할 수 있었기에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답니다. 그래, 우리 서로 힘을 모아 실천하도록 합시다. 아자, 아자!
짝짝짝! 감사합니다.♡

최정현 심사위원

어린이들의 글을 읽는 경험은 새만금의 변해가는 모습처럼 새만금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애정도 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글 속에 그려진 멋지고 창의적인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 글짓기대회 운영국

김상현 제1회에 이어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담당자로서 매우 뜻깊고 기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새만금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글로 표현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국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하나 전국 어린이 글짓기를 통해 새만금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뿌듯한 행사였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순수함으로 간척과 환경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바람대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간척의 개발과 자연의 보전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국내 유일의 간척박물관으로서 전국에서 그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욱진 어린이들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새만금은 공간과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과 자연, 환경과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미래도시를 꿈꾸는 기발한 상상력, 가족과 즐거웠던 추억, 환경과 생태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기대감 등은 앞으로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에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차혜연 글짓기 대회를 운영하며 많은 어린이들의 정성과 열정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가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2024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발행일 2024. 12.
발행인 김항술
진 행 오욱진, 김상현, 차혜연, 나하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5634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29-7

디자인 더이룸

©2024.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이 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창작물의 저작권 보유자 및 창작자에게 있으니 무단 복제 및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